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 50주년 기념
강론 번역집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자
성재덕 신부
(成載德 PIERRE SINGER)

강론집

(가해)

서울성가소비녀회 역사자료실 편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님 약력

1910. 9. 13 프랑스 북부 Hesdin에서 탄생
1928. 9. 21 파리 외방선교회 입회
1935. 7. 7 사제서품
1935. 11. 1 한국진출
1936. 4. 30 합덕 본당 보좌
1938. 6. 1 인천 답동 보좌
1939. 7. 7 해화동 본당 주임. 교무금 제도 실시
1942. 5. 제기동 본당 신설
1943. 12. 25 서울성가소비녀회 창설
1944. 11. 미아리(현 길음동) 공소 신설
1949. 5. 2 논산 본당 주임
1949. 9. 1 시약소 설치
1951. 8. 31 논산 대건 고등학교 설립 인가
1953. 1. 3 신히 양로원 설립
1953. 9. 11 대건 유치원 개원
1956. 양생원 설립(현 성광원)
1958. 대전교구에 최초로 레지오마리에 도입
1958. 5. 13 빈민구호 공헌으로 부적면장 감사장
8. 15 난민구호와 교육사업 공헌으로 논산읍장 감사장
1960. 7. 7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1961. 7. 10 양로원 설립과 극빈자 구호사업 공헌으로 논산읍장 감사장
10. 13 교육사업 공헌으로 충남도지사상
1961. 3. 신히 여중고 설립 인가
1964. 7. 1 홍산 본당 주임
1969. 12. 29 서울성가소비녀회 지도신부
1979. 12. 19 프랑스 공로훈장
1985. 9. 13 사제서품 및 한국진출 50주년 금경축
1992. 2. 26 선종(향년 82세)

머 리 말

어느덧 우리 수도회가 창립된지 56년이 다 되어갑니다. 수도회 창립 50주년을 기해서 발간했던 창립자 신부님의 서한집과 다해 강론집은 해가 거듭해갈수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동안 꾸준히 성신부님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발간되는 이 강론집은 제12차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일반지침 대로 창립자 정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노력의 한 가지로 그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대회년 준비와 3천년대를 향한 수도회의 쇄신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좀더 창립자 신부님에 대한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수도회 56년의 역사에서 성신부님의 생존시의 모습을 뵈지 못한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단순하시고 겸손하신 모습과 말씀을 기억하는 수녀님들이 신부님의 강론집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과, 신부님을 뵈지 못하고 강론집을 읽는 수녀님들의 감동은 자못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론집을 번역한 최 벨라도 수녀님은 좀더 신부님의 생존시 말씀하시던 어감을 염두에 두고, 쉽고도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시며 정성을 다하셨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론집은 수도회 카리스마의 소중함은 물론 그 고유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즉, 수도회 창립 정신인 내림의 영성이 성신부님의 구체적인 강론말씀을 통해 빛나고 있으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 소비녀들의 공동생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한 봉사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성 신부님께서서는 강론을 하실 때 거의 모든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시대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시고 이 시대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짚어 주시며 신자의 자세와 소비녀들의 역할을 요약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님은 물론 세례자 요한과 열 두 사도 그리고 수많은 성인성녀를 등장시킴으로써 신부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인물을 사랑하시고 덕행을 본받으시며 영적인 교류를 하시며 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강론집을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써 창설자 신부님의 정신을 보다 가까이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회원 각자와 창립자 신부님과의 영적인 친교와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앞으로 출간될 나해 강론집을 기대해 봅니다.

1999년 8월

총원장 이 프리스카 수녀

육간이의 말

창설자 성신부님께서 타계하신 후 우리는 50주년 행사를 보다 뜻있게 기념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도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쇄신하며 새롭게 설계해야 할 단계에 이르러 창설자 신부님의 정신과 삶과 가르치심을 되새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생전에 본당에서부터 수녀원에 계실 때까지 불어로 쓰신 주일 강론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 번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996년에 다해 강론을 출간한 후 이제야 나해 강론 제2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쉬운 표현으로 하셨지만 그분의 영성은 전생애가 하느님 사랑에 불타셨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얼마나 충실하셨는가는 그분이 생전에 이룩해 놓으신 사업들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글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읽을 수 있으며,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하느님과 늘 함께 생활하시고 소비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은 겸손의 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이룩하신 업적이나 공적이 드러날까 무척 두려워 하셨으며, 그런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행여나 당신이 가로막을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은 순명의 덕을 사랑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수녀원을 창설

하신 후 늘 소비녀들과 격리되어 계셨던 점을 못내 섭섭히도 생각하셨지만 그분은 교회와 교회 장상에 대한 순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에 본당 사목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한편 주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로 사랑하는 성가소비녀회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신부님은 늘 “창설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란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셨기에 성가소비녀회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부님의 순명과 겸손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부님의 덕을 배우며 하느님께 사랑과 겸손과 순명의 덕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든 기뻐하는 소비녀로서 주님의 신비체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어 산다면 주님의 영원한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이 책으로 엮여지기까지 불어번역을 정성껏 교정해주신 최세구(Gezegou, Robert)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원장수녀님과 협조해 주신 수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8월
최 벨라도 수녀

차 례

성재덕 신부님 약력	3
머 리 말	5
옮긴이의 말	7
대림 제1주일	13
대림 제1주일	16
대림 제2주일	20
대림 제2주일	23
대림 제3주일	27
대림 제3주일	30
대림 제4주일	33
대림 제4주일	36
대림 제4주일	41
성탄 대축일	45
1월 1일	49
사순 제1주일	53
사순 제1주일	57
사순 제1주일	61
사순 제2주일	65
사순 제2주일	68
사순 제3주일	72
사순 제3주일	76
사순 제4주일	80
사순 제4주일	84
사순 제5주일	87
사순 제5주일	90
부활 제2주일	94

부활 제2주일	97
부활 제3주일	101
부활 제3주일	104
성소 주일	108
부활 제4주일	113
부활 제4주일	116
부활 제4주일	119
부활 제5주일	123
부활 제5주일	127
부활 제6주일	130
부활 제6주일	135
연중 제2주일	139
연중 제2주일	142
연중 제3주일	146
연중 제3주일	149
연중 제4주일	153
연중 제4주일	157
연중 제5주일	161
연중 제5주일	165
연중 제8주일	169
연중 제9주일	172
연중 제10주일	176
연중 제10주일	179
연중 제11주일	184
연중 제11주일	187
연중 제12주일	191
연중 제14주일	195

연중 제15주일	200
연중 제15주일	204
연중 제16주일	207
연중 제16주일	211
연중 제17주일	215
연중 제17주일	219
연중 제18주일	221
연중 제19주일	225
연중 제20주일	229
연중 제20주일	232
연중 제21주일	235
연중 제22주일	238
연중 제22주일	242
연중 제23주일	245
연중 제23주일	249
연중 제24주일	251
연중 제25주일	255
연중 제25주일	257
연중 제26주일	261
연중 제26주일	265
연중 제27주일	268
연중 제28주일	271
연중 제30주일	274
연중 제30주일	277
연중 제31주일	281
연중 제32주일	285
연중 제33주일	289

대림 제1주일

2,10이사5 ; 로마 13,11-14 ; 마태 24,37-44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대림은 라틴어로 ‘오신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여러분은 영적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어째서 교회는 성탄 때와 같이 온순하고 연약하며 암전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쳐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또는 갑자기 뚫고 들어오는 도둑처럼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아직은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때이며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하느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세주를 기다렸으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도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큰 희망도 안겨 줍니다. 우리는 매일의 근심, 걱정, 고통을 겪고 매사에 노력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신 느낌마저 들고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같은 의심이 생기기도 하며 착한 사람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악한 이들은 영원토록 승리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하고 재림신앙을 고백합니다.

1. 대림시기 동안 첫째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치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당면 문제들을 인민들이 볼 수 없게끔 세뇌시키는 아편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교회가 죄인들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꾸민 내용이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마태 24,30-31)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들이 불러나와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 중,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대사제 가야파 앞에서도 감히 그 점을

주장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마태 26,64).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마태 24,36).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그 날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 교회가 재림에 대해 가르치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재림은 뜻밖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종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분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도둑처럼 오시어 모든 것, 즉 집, 동물, 사람들을 앗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지진처럼 우주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 그분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3. 교회가 가르치는 세 번째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십 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기를 알아보기 위해 라디오를 들으며 오십 년 후에, 천 년 후에,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인지 등등을 미리 알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여러 가지 일을 예측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직업적, 개인적 취미나 오락에 몰두하여

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재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탓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인류를 무감각 상태로 이끌고 간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바오로 사도와 함께 나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림시기가 어느 때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때입니다. 대림시기를 의미 있게 보냅시다.

수녀님들!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죽음이 뜻밖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매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1960년)

대림 제1주일

이사 2,1-5 ; 로마 13,11-14 ; 마태 24,37-44

희망의 때

어느 사색가가 말하기를 “희망이 없는 세상은 호흡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였고 단테 시인은 “지옥이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시기는 희망의 때이며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975년 4월에 아시아, 캄보디아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 변화가 없는 단조롭고 의미 없는 삶에 지친 까닭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식들인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그와 꼭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희망)이 없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일하고 자는 매일 틀에 박힌 생활...;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특별히 희망에 의해 살아갑니다. 다행히도 대림시기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바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에 비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까? 그들은 무사다운 메시아, 개선하는 메시아, 자기네 나라를 점령한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자유를 찾아주는 메시아, 이 메시아에 의하여 유다왕국은 모든 나라 중에 최대의 강국이 되어 전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방금 들은 이사야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장차 어느 날엔가 야훼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뗏부리 위에 우뚝 서고, 모든 언덕 위에 드높

이 솟아 만국이 그리로 몰밀듯이 밀려들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이 계신 전으로”(이사 2,2-3).

메시아는 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무사도, 개선 장군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폭력을 거부하셨고 세상의 정복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정치적 해방을 희망했지만 예수님은 고차원적 해방, 더 참다운 해방인 내적 해방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외적 원수를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내적인 이기주의, 교만, 위선, 배금주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점령 당한 조국의 운명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복음에서 여러 번 그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영혼의 적이야말로 위에서 말한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숭배나 교만으로부터 먼저 해방될 수 없다면 조국의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 유대인들에 대해 먼저 언급한 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건강입니까? 한달 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그 복이 한국의 통일입니까? 경제적 위기의 해결입니까? 현 제도의 강화 혹은 그 변화를 뜻합니까?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더욱 완벽한 안녕입니까? 우리 모두는 더욱 정의로운 세상, 더욱 형제적이고 단합된 세상을 원할 것이며 우리가 매일 겪는 수백 가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교회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황님과 공의회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하

여 해야 할 일을 여러 번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 번영만을 위한다면 한국사람인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욱 내적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내적 혁명이 더욱 시급합니다. 우리 나라 번영을 위하여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역량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하여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이기주의와 교만과 돈을 쫓는 일, 보잘것없는 이들을 경멸하는 습성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으로 대림시기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사들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자동식 구원이 아니라 각자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덕을 구하라. 다른 것은 덤으로 주시리라.” (1981년)

대림 제2주일

이사 11,1-10 ; 로마 15,4-9 ; 마태 3,1-12

예수님에 앞서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가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 …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마태 3,2-3).

성탄 축일을 앞두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 우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실천할 것을 교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침묵을 더욱 생활화합시다.

먼저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때마침 사흘 후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큰 축일입니다.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침묵을 하셨습니까? 더욱이 헛된 세속의 기쁨을 피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찾아가 돌보아 드렸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도활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한은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단식하고 맨땅에서 자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로지 오시는 메시아만을 생각했습

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거룩한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고르게 하라”(마태 3,2-3) 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별로 착하지도 않고 성인성녀도 아닌 우리이기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주 침묵 속에 머무르며 성체 앞에서 몇 분 동안만이라도 고요히 조배드리고, 매일 영적 독서를 하며 더 많은 기도를 합시다. 만일 우리가 신문만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안에서 침묵 속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고요한 밤에 나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소음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만일 매일 몇 분의 침묵과 잠심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과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 세례자 요한은 대림시기 동안 어느 정도 보속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교회는 어떤 금식이나 절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은 유다인들에게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마태 3,8-9) 고 호통쳤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결점을 고치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가장 자주 범하는 죄를 성찰하여 그 습성을 고치도록 진정 노력합시다.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악습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고해성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만하고 태만하며 타인을 험담하는 우리는 독사의 족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비방하고 나쁜 표양을 보이며 장상들에게 순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곧 다른 사람의 회개를 방해하고 하느님 말씀의 전

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대림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없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은총을 받지 않는 한, 세상은 진리 안에 살 수 없고 오류와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발명들이 행복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처럼 생활에 편리한 발명품이 많은 적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누구나 하느님을 위해 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집을 원하는 사람, 자동차나 텔레비전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며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그런 물질만 갖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열망하라는 뜻입니다. 창조물 중에 하느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고 없어질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죽을 때에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바오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메시아만이 참평화를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시고 이 세상

안에 오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과 성인들과 마리아께서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하셨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구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 대림시기 동안 매일 하느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독서나 묵상을 위한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나) 매일 자유롭게 얼마의 보속과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기회는 많습니다.

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메시아의 탄생을 희망하며 교회와 함께 노래 합시다. “하늘아, 높은 곳에서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뿌려라. 구원이 피어나게, 정의도 함께 짝트게 땅아 열려라”(이사 45,8). (1972. 12. 5)

대림 제2주일

이사 11,1-10 ; 로마 15,4-9 ; 마태 3,1-12

회개하십시오!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어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마태 3,2-3).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지난 주일 복음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물질적 하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며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내용은 그 사실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또한 자기 성격이나 여러 각도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같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자기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문제나 문화적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면을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측면들을 다분히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면, 또는 종교적인 면입니다. 종교적인 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어주고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있어서 종교적인 면을 사람들은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육체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 등의 다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인생의 종교적인 면을 밝혀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영원한 것과 끝없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텔레비전이나 비행기, 최신 모델의 자동차 등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식량이나 주택이 이 세상에 충분하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 충분해서 세상이 마치 지상 천국처럼 되었다 해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의 희망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다.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은 절대적 행복과 완덕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타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행복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

일 음식과 건강, 돈과 집 그리고 자유가 부족하다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와 갈등으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느님을 모른다면 허공을 헤엄치듯 더욱 가련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나 안락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더 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군중에게 빵을 주신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 하시고, 맹인을 고쳐주신 후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 라고 하셨으며, 마실 물을 길어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요한 4,10)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재물을 더 나은 생활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나만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모두 회개해야 해… 나는 착한 신자이고 수도자이니까”하고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말하지 맙시다. 유대인들도 꼭 그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요한 8,33)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자 요한은 화가 치밀어 “이 독사의 족속들이! …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마태 3,7-11)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만 성사를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을 사는 것이며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세례를 받고 수도자일지라도 내 안에는 항상 바리사이적 정신과 이교도의 정신이 재 침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며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악의 세력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3. 회개하십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양심적으로 나는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고 진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 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이사 11,1-2) 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려거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정치활동을 하려거든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려거든 역시 성서를 읽으십시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 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나라는 바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 서울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이시오! 복음에 비추어 보아 우리 안에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각자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1977. 12. 4.)

대림 제3주일

루가 7, 18-23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자 요한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찾아가 그분을 믿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요한의 제자들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루가 7,19)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다”(루가 7,22-23)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를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보다 더 중요하게 베풀어주신 표적은 바로 세례성사와 신품성사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과 사제들은 예수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영혼들을 위해 같은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사제들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1. 소경이 보게 되고...

맹인이란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외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미

신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까? 열심히 신자들과 사제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신자와 사제들도 세상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자와 사제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 하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신자들과 사제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아직 사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간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고 하십니다.

2.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약간의 교리는 알지만 용기가 없어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겁한 자들로서 끈기 있게 항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며 거짓말의 대장인 악마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사제만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빛나가는 이 사회를 구하시기 위하여 성인 신부님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용감한 예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외치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언제까지 둘로 나뉘어 서로 반대하며 비틀거리고 서 있겠느냐? 야훼께서 하느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신이 그렇다면 그를 따라가라.”

3.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이 나병환자들 역시 죄인들, 악마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무서운 상처투성이입니다. 성세를 받은 사람 중에도 이미 하느님의 모상이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분은 사제의 덕분으로 최악의 생활을 청산하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시오”(마태 8,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제도 죄인에게 사죄를 해줍니다. 우리 중에 죄없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4.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들은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귀머거리가 된 사람보다 더 비참한 귀머거리는 없습니다. 사제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강론을 하고 책을 쓰고 피정지도를 하며, 사람들이 통회하고 신앙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제도 “열려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런 일은 힘든 일이지만 가끔 하느님은 이런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5.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죽은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신자들로 생명과 은총을 잃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누가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인가?” 하면서 한탄하십니다. 사제가 살려야 합니다. “라자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고 사제가 고해성사를 주면서 말하면 영혼은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제는 이런 기적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줄 때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제도 예수님처럼 “나는 생명이며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6.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더욱 순명적이며, 지상에 있는 것에 마음은 두기보다는 천상 것에 더 마음을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준다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하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더욱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개종하는 이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 부자들이여! 가난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오, 가난한 사람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면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사제의 모습으로, 성실한 신자들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 안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이 대림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불구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75년)

대림 제3주일

이사 35,1-6ㄱ.10 ; 야고 5, 7-10 ; 요한 1,6-8.19-28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요한 1,26). 유대인들은 알아 모셔야 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분의 세례 때의 경탄할 만한 일과 이미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예언들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로 보아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활 양식은 유다백성이 희망했던 것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시하였고, 급기야는 그분을 박해하고 반대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무식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요한 1,26).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요한 14,9) 예수님께서도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현존을 알며, 생활 속에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 끝날 까지 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둘째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복음서는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생활,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책이며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오리게네스 교부는 복음의 말씀을 성체와 같은 존경을 갖고 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축일 미사 때 복음서에 분향하고 공의회 때에는 복음서를 회의장 한가운데 모셔놓고 토론을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 가난한 이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은 모두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마태 25,45 참조).

넷째로, 예수님은 특히 실질적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은 밤이나 낮이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잠언 8,31). 어느 곳에나 사제가 있고 제대가 있고 감실이 있으면, 예수님은 좋으신 아버지처럼 당신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갖가지 소원을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오! 주님의 크신 사랑이여!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오늘 날 사람들은 사제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복음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책은 많이 사서 읽으면서도 생명의 말씀은 경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방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뿐 아니라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수녀님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서워 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기 쉬웠는데도 알려 하지 않았습시다.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여러 번 그분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어서 용서를 빌고 우리의 배은망덕을 기워 갚읍시다.

대림 제4주일

이사 7,10-14 ; 로마 1,1-7 ; 마태 1,18-24

성 요셉

돌아오는 목요일이 벌써 성탄 축일입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 축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에 교회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모범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분은 성 요셉입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로서 특별히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합니다(제1독서에서 이사야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마태오 복음사가는 마리아의 잉태사실(마태 1,18)에 대해 말하고 나서, 성 요셉에게 그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한 천사의 말을 길게 전해줍니다. 이 복음구절을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하여, 또한 송사를 원하지 않아 은밀히 그를 친정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요셉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이 항상 불충분하며 비합리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은 요셉을 들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된 것처럼 요셉 성인을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합

리적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가 곧 이어서 마리아와 파혼하려 하였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만일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라면 의로운 요셉은 법에 따라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로 성스럽게 생각해 왔으므로 이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읍니다. 만일 마리아가 무죄하다면 그를 소박하여 친정으로 보낼 경우 요셉은 의롭지 못한 사람,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마리아가 유죄냐 무죄냐 하는 점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며, 요셉이 천사의 방문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며, 성령에 의한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서에 아무런 언급도 없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요셉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특히 이러한 중요한 경우 사람을 속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탐독해 왔던 요셉은 성서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구세주가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친정으로 보내려고 한 데 있지 않고 그의 믿음에 있었읍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내려 한 것은 그녀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한 까닭에 하느님의 아들로부터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황송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심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과 정의감에서 자기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꼈기에 뒤로 물러서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밝혔으므로 요셉의 참 영광은 확실하게 드러났읍니다. 하느님이 구원 사업을 위하여 요셉에게 중책을 맡기신 이유가 자명해졌읍니다.

대림시기에는 구세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선택한 요한 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셉의 역할 역시 그만큼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출현을 알렸지만, 요셉은 전 인류를 대표하여 메시아를 영접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 1,11) 고 기록하고 있지만, 적어도 요셉은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맞아 들였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주셨지만, 바오로 사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요셉의 덕분으로 예수님은 하나의 독특한 성을 물려받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셨으며 한 나라의 국민이 되심으로써 인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수녀님들! 성탄을 거룩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요셉 성인처럼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과 꼭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과 같은 의로움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요셉의 의로움은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예수님께 봉사했습니다.

1.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 사실과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든지, 하느님의 말씀이나 성서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였든지,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2. 요셉은 살아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말씀 안에 살아 계시며 성사 안에, 형제들 안에 살아 계시며 특별히 보잘것없는 이들과 불행한 이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은 곧 마리아의 태내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은 요셉의 믿음과 같

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타인들을 영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인인 그들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3. 요셉은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자세는 모든 믿는 이들, 특별히 수도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의 생활을 편하게 해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신 순간부터 요셉은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려면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합니다.

수녀님들!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보이신 성 요셉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어 뜻있는 성탄을 보내도록 해주소서. 아멘.

대림 제4주일

이사 7,10-14 ; 로마 1,1-7 ; 마태 1,18-24

성 요셉

며칠 후면 성탄 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축일을 축하하기 전에 성 요셉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성 요셉도 구원사업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분만큼 고통을 받았단 말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돌

아가신 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탄생 전에 요셉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되어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마리아처럼 모성애로 받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요셉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너무나 커서 감히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강도이었거나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어린이의 경우, 또는 부인이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남편의 경우들이 그렇지만, 요셉의 고통도 이런 종류의 정신적 고통이었기에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이 합쳐져 인류의 구원에 기여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 할 때 아마도 마리아는 약 이십 세 가량 되는 젊은 처녀였고 요셉은 꽤 나이가 든 총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에게 동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 7,14). 즉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유다 처녀들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희망으로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다. 게다가 모세법에 의하면 과부는 작고한 자기 남편의 친척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도 ‘룻’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자기 시어머니의 권고로 작고한 자기 남편의 친척 보아즈에게 결혼을 청했고 보아즈는 이 청을 받아들였습니다(룻기 2,20-22 참조) 보아즈는 다윗왕의 할아버지이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동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처녀는 과부처럼 고려되었으며 친척되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있었

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먼 친척이었고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서, 말하자면 ‘동성동본’인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였고 그의 정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친척인 마리아를 사랑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성장을 지켜보아 왔으므로 그의 순결과 열심에 감동하여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처녀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성서에 “그는 의인이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 숙고한 후에 결혼 서약을 받아들이고 결혼식은 몇 달 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은 같이 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보다 조금 후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마리아는 “그래도 동정을 지킬 수 있느냐?” 고 반문하였고 천사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루가 1,38) 하고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천사에 의하여 나이 많은 친척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석 달 가량 있다가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친척언니 집으로 떠나기 전에 천사의 방문에 관한 사정을 요셉에게 말해야 할 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으며 마리아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면 물론 요셉에게 먼저 그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야기를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요셉에게까지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었으니 하느님이 밝혀주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화와 고요 속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즈가리아가 살고 있었던 도시인 헤브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은 즉시 마리아의 잉태를 알아챘습니다. 마리아가 바깥에 전혀 다니지 않았으므로 나자렛 사람 중에서 요셉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히 고백하며 순결한 마리아가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고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임신한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친정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고 의로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그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복음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마태 1,19) 고 간단하게 전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마태 1,20-24) 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에 받아들임으로써 요셉은 평온을 되찾았으며, 예수를 기르는 아버지로서 마리아와 예수의 보호자가 되는 중책을 맡은 가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나 두 가지 사실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혼자서 구원사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구속의 협력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당신 어머니가 되라고 요구하시고 요셉에게는 예수와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이 되라고 요구하시며 세례자 요한에게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로 우리들에게 말과 모범적 행동으로써, 선행과 고행으로써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일하는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위하여 갖가지 어려움과 애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둘째로, 이 세상에 부정한 죄가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정덕을 거스르는 죄를 아무 거리낌없이 예사로운 일로, 습관적으로 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착한 표양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스런 어린이들이 순결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교육합니까? 세상이 순결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신바람 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오늘 요셉 성인을 많이 생각하고 요셉 성인처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이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의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대림 제4주일

이사 7,10-14 ; 로마 1,1-7 ; 마태 1,18-24

마리아

성탄이 다가오니 마리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마태 1,20) 하였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 말로써 초창기 그리스도 신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오 사가는 유다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썼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로 아기예수를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기보다 마리아가 성령께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성령께 순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 그녀가 행한 모든 것은 성령의 지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을 너무나 사랑하였으므로 항상 자유롭게 즐거웠으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 마리아는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소 죄인들이며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죄악에 속박되지 않으셨고,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으므로 그녀의 마음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 초연하였습니다. 그녀는 부나 안락함이나 인간적인 욕심, 그밖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하찮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세상의 즐거움을 경멸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기쁨이나 부부생활, 모성의 즐거움도 알고 사랑하였습니다. 나자렛 마을에서 사시며 이웃과 우정을 나누는 기쁨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인간 관계를 끊고 비사교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그녀도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필립 4,12). 진정한 자유는 이것입니다. 이 자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러한 자유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2. 마리아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루가 1,46-47).

언제나 하느님의 표징을 알아내고 이해하며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녀의 기쁨은 흘러 넘쳤습니다.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루가 1,48-49). 언제나 그녀는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루가 1,51-53)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노래했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도 노래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모든 인류의 해방가이며 가난한 이들과 보잘것 없는 이들과 굶주린 이들을 대신한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믿는 하느님은 교만한 사람들과 포식하는 사람들은 거절하시지만 죄인들과 보잘것 없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 마리아는 항상 성령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녀가 선호하는 말은 한결 같이 “저는 주님의 종”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징표를 보내주시자 마리아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조금도 저항감을 갖지 않았습니까(루가 1,30-38). 노인 시메온이 많은 고통을 알렸을 때도 그 예언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루가 2,34-35).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자 마리아는 즉시 그녀를 도우려 떠났고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봉사했습니다(루가 1,56).

누구든지 하느님과 사람을 성심껏 사랑하고픈 사람은 마리아처럼 이기주의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마리아에게 미리 고통을 받으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고통이 하느님의 벌이 아니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권력자들과 당시의 거짓 사제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마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밀알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리아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둠 속, 십자가 곁에 서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의인을, 더구나 당신 아들을 벌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마리아도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가 23,46)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비록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예수님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흘린 눈물은 실망의 눈물도 항거의 눈물도 아니며 자기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믿음이 고통을 피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덕분으

로 희망을 간직하고 꾸준히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당신처럼, 마리아처럼 사는 것, 즉 자유로운 삶과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 형제들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고통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 이라 부르는데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란 뜻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많은 고통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박해가 와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이사 7,14).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1977. 12. 18)

성탄 대축일

이사 9,1-6 ; 디도 2,11-14 ; 루가 2,1-14

요즈음 사람들은 항상 뉴스를 듣고 싶어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신문 잡지 등을 읽으며 두 사람만 모이면 “오늘 뭐 새로운 소식 없나?” 하고 질문합니다. 어디에 지진이 있었다든지 큰 범죄가 있었다든지 달나라에 로케트를 보낸 소식, 혁명이나 전쟁에 관한 소식 등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연 당한 어느 공주의 슬픔이나 유명한 연예인의 결혼이나 어떤 선수의 승리에 관한 소식을 즐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료하게 살아서인지 사람들은 뉴스의 가치도 없는 것을 ‘뉴스’ 라고 하며 흥미도 없고 쓸데없는 하찮은 것을 ‘토픽’ 이라 하며 흥미로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뉴스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려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바꾸어놓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소식은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뉴스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소식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소식만이 기쁘고 진실한 소식이요, 믿기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소식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경탄할만한 업적들을 계속 해낸다 하더라도 인간이나 인간의 최후 운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이나 민족의 독립운동은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시고자 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눈을 감아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밤에 저도 신자 여러분들에게 꼭 같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비누거품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세주 하느님의 탄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1. 이 소식은 몇 천 년 전부터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하느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 이사야, 야곱 선조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주셨고 또한 이사야, 다니엘 등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구세주를 기다렸으며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인류와 하느님과의 화해와 영혼들의 구원을 실현하실 착한 메시아가 빨리 오시도록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성탄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2. 이 소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으니 사람은 본래가 무입니다만 오늘부터는 위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혈육으로는 하느님의 형제요, 친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므로 형제들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오늘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도 이제 아담의 후손이 되셨고 우리들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하느님이 오늘 먼지인 인간에게까지 내려오셨으니 우리도 하느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만큼 위대해졌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3.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천국 문이 닫혀져 있었으나 오늘 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해준 바와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되돌려 주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약속해 주는 소식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10-13)

4. 이 소식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이 소식은 어두운 밤에 처한,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줍니다.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훌륭한 역사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민족은 격상되지만 그리스도를 제외한 민족들에서는 격하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육화 소식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 아들이 사람이 된 소식은 보통 뉴스처럼 단순히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었으므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니 그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령이시며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이시므로 그분을 떠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속일 수도, 우리를 속일 수도 없는 분이시며 그분의 가르침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을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

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과 삼왕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헤로데왕을 보십시오. 그는 증오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기쁨과 평화로움과 단순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공포와 질투와 분노에 싸여 있습니다. 한 편에는 길을 인도하는 별과 천사들의 초대와 말을 듣는 지혜가 있고, 다른 편에는 광증을 일으켜 살상을 하고 하느님께 싸움을 거는 헤로데가 있습니다. 한 편에는 영원한 행복과 은총, 하느님과의 일치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는 이 소식을 거부한 헤로데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은 채 결국 매우 가련한 죄인으로 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맙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강생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은 당신의 인성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보십시오. 하느님이 강생하신 후에 사는 우리, 대단한 특권을 갖게 된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의 탄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어떤 학문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생명이 넘치는 훌륭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미끼에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며 목동들과 같이 되십시오. 이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돌아왔습니다. 아멘. (프랑스 사람들을 위한 미사 1977. 12. 24)

1월 1일

소원(복)

오늘 아침 우리는 1976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우리는 아침 기도를 하고 나서 서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축원이 하나의 형식적 예의이거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전연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비는 나의 소원은 진실하고 간곡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느님의 나라와 성가소비녀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소원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성가소비녀들입니다. 이 명칭이 의미하듯이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종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정신이상이 된 한 노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내 곁에 있던 한 젊은 수녀가 내게 말하기를 “저 할머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라고 하길래, “아니다. 내가 볼 때 저 노인보다 더 불행

한 사람은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그들은 동물처럼 무엇이 덕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원죄 이후 하느님은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 먹으리라”(창세 3,18) 하였습니다. 비록 하느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다 가정해도 성가소비녀들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가함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유혹을 피하고 우리 마음 안에 성화은총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 악마는 덤벼들 때마다 헛수고를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마가 덤벼들 때마다 성공합니다. 소비녀들도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자기 영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 불 속에 던져집니다. 게으른 여종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단 한가지 이유로 인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마태 24,48-51 참조).

2. 소비녀는 자기 성소를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수녀회를 떠난 수녀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원인이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취미나 사랑이 없어지고 유혹들이 들어와 마침내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성소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한다면 어린이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치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독서를 좀더 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녀원을 떠난 사람 중에는 장상이 일을

맡기지 않아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 소비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소비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느질, 자수, 재단, 정원관리, 요리, 세탁 등등... 수작업과 동시에 정신노동도 좋아해야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완전한 소비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소소한 물건들을 버리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또한 이런 말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어 ... 나는 발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해 ... 나는 부엌일은 전혀 몰라” 등등. 소비녀는 이 같은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비녀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자는 회계장부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분야에 있어서 좋은 의미의 경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 소비녀는 수도원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해야 하며 수녀원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 위하여 각자가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주방 담당 수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음식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혼란과 불만을 갖게 합니다. 학교에서 어느 수녀가 게으른 탓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기를 거부한다면 다른 수녀가 그것을 대신 가르쳐야 하므로 공동체 안에 불만이 유발될 것입니다.

일에 관한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

대요한 19,30)”,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 마쳤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76. 1. 1)

사순 제1주일

창세 2,7-9. 3,1-7 ; 로마 5,12-19 ; 마태 4,1-11

유혹에 대항하는 정신

우리의 생은 휴식의 때가 아닙니다. 제1독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한 부인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때까지 인간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싸우되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싸우시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심지어는 그의 가정을 상대로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 곧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말하던 베엘제불의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첫머리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성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성서의 첫머리에서 그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유혹합니

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선전 포고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천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며, 이 전쟁은 가장 큰 싸움으로서 인간들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벌이는 전쟁은 잘 해야 몇 년 혹은 그 이상 걸리겠지만 하느님 나라와 마귀 간의 싸움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었으므로 그 결과 마귀는 인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였기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지 보십시오.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줄 모를 뿐 아니라 매일같이 미신 행위를 하고 도둑질과 과음을 하며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또한 간음과 낙태행위와 자살 등,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죄 이후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던가요?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이렇게 인간이 마귀의 편이 되어 불행하게 된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겠습니까? 인간 때문에 마귀가 세상에 들어 왔으니 이 지상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순수 영인 마귀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악마를 싸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힘과 방법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하느님 자신이 마귀를 이 세상에서 축출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느님께서서는 그 일을 사람이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느님은 만물보다 무한히 높으신 창조주이신 반면에, 마귀는 피조물 밖에 안되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상대로 싸

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권위 상실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장교가 졸병에게, 교수가 학생에게 싸움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인이 일꾼에게 싸움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까? 물론 우리인간들은 마귀보다 열세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람이 싸운다면 끝내는 사람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여인에게 머리가 밟히는 것”(창세 3,15)은 마귀에게 망신일 뿐 아니라 지옥불에 타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십오 세의 어린 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어린 소년이 승리하였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분통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1사무엘 17장 참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마귀를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사들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세상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마귀를 싸워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수도자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 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버지’이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마가 하는 거짓말에 예수님은 진리로써 대항하시고 죽음에 생명을 주시며 마귀를 쫓으시고 선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악마는 이런 예수님을 미워한 나머지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기워 갚아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곧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는 악마와의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때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핵전쟁도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의 훌륭한 군사가 된 바오로는 이런 싸움을 잘 싸워 나갔습니

다. 우리도 잘 싸워서 우리의 마지막 생애에 영광의 월계관을 얻도록 합시다. 모든 성도들은 하느님의 군인입니다. 성난 마귀는 쉽게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영세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며, 견진을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임관되어 일생동안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칩시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악신의 세력을 축출해 버립시다. 이 세상에서 악마를 내쫓는 일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악마와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때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들, 특히 수도자들은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가소비녀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기 소임 이외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복을 장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투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받으실 때 시간낭비를 고백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시간낭비를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전투 정신에 결함이 되며 그리스도의 군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1970년)

사순 제1주일

창세 2,7-9. 3,1-7 ; 로마 5,12-19 ; 마태 4,1-11

“보라! 지금은 은혜를 베푸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생명을, 즉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 문제를 위하여 흔히 장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장래에 직장이나 성공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다던가, 가을의 수확을 위하여 봄에 씨를 뿌린다던가, 장래 노후 대책이나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 것 등의 준비는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육신생활을 위해 장래를 구상하는 일은 찬양할만한 일이며 지혜로운 일로서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중하므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가 33-34)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공로를 많이 준비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애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영혼에 관한 한 그런 상업적인 정신을 버립시다. 우리 영혼을 걱정하기 보다는 바로 사도가 권유한 것처럼 오늘, 현재의 중요성을 인식합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입니다. 미래의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계신 하느님

을 사랑해야 합니다.

1. 내 영혼은 하느님의 모습이며 순수한 영입니다.

하느님 역시 순수한 영이시므로 과거도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뿐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현재’,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을 생각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내일은 불확실한 것이니 오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고 ‘지금’, ‘현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 하겠다”, “나중에 죄악을 끊어버리겠다” 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당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현재’, ‘지금’ 을 주셨으므로 만일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대들이 어찌하여 종일 한가로이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오로지 장래만을 생각한다면 꿈꾸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일은 과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느님을 위하여 일했다면 과거는 이미 하느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마나 하느님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하여 일을 해왔다면 과거는 악마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래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미래를 안배하십니다. 우리가 장래를 너무 걱정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네 영혼을 되찾아 가리라.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이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루가 12,20) 하십니다. 현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순간만 허락하시며 이 잠깐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2.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총의 날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라는 말이 구속, 곧 우리의 구원이 어제 이루어진 것도 내일 이루어질 것도 아니며 바로 ‘오늘’, ‘지금’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십니다. 천국의 문도 내일 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곧 나중에 우리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사랑을 실천해 우리 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구원의 시대, 용서의 시대,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 덕분에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며 뿔뿔히(마태 22,14 참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성사를 주시며 은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 가셔야 합니다.

3. 원죄 이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도 ‘이 세상의 통치자’(요한 12,31)가 된 악마를 택하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악마의 유혹을 받는 굴욕을 감수하셨지만 새로운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는커녕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마태 4,10) 하시며 악마를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신비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악마를 이미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그 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천사들이 나와 시중을 들었다”(마태 4,11).

형제 여러분, 사순시기가 시작된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순시기를 보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나니 회개를 늦추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내일 하지, 뭐”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무엇이나 다 부질없는 것이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지금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행복이며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언제나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대비해 저축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도 죽을 것이요,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만물이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덧없는 것을 갈망하지 말고 어리석고 유치하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하느님의 더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내 마음에서 사탄을 쫓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악마를 내쫓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 생활을 개선해 나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홍산본당 신자들에게 1968년)

사순 제1주일

창세 2,7-9. 3,1-7 ; 로마 5,12-19 ; 마태 4,1-11

유혹이란 무엇이며,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성체성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도 하느님 신비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예수님은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유혹에 관한 한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로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선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데 우리 원조 아담과 하와를 어째서 유혹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셨느냐?” 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는 “인간이 유혹에 떨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 시험하신 것을 보아 하느님은 선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전에 알지 못하시는 분이려면 하느님은 전지하신 분도 무한하신 분도 아니다” 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대답은 “원조들이 유혹에 빠질 줄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던 하느님은 그들이 일부러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셨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오늘 유혹이란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 유혹의 유익성도 좀 생각해 봅시다.

1.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며 정상적인 것입니다. 의식주, 식욕, 명예욕, 정욕 등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유혹은 악마와 그 추종자들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악행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충동

입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유혹에 내 의지가 동의할 때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 중에 “유혹을 없이 하시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마태 26,41)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혹에는 항상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 악행을 하도록 교사하고 사주하는 일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보라고 제의하였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금지된 과일을 먹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제안이나 사주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둘째, 상상적 만족감, 또는 상상적으로 예견된 쾌감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우 강력한 충동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악마가 우리 마음 안에 침입하려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와가 보니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웠다.” 이처럼 하와는 유혹에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동의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범죄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행동에 옮기기 전이라도 죄가 성립됩니다.

2. 유혹의 유익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 악을 막으시기보다 악에서 선을 끌어내실 수 있도록 유혹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 놓으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가)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유혹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그들의 덕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욕 성인이나 토비트나 치명자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 하느님은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십니다. 광석이 불에 제련될 때 불순물이 제거되듯이(잠언 17,3) 하느님은 유혹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악을 제거하려 하십니다. 물론 유혹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격분하여 하느님

을 거슬러 활동합니다만 실은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를 고맙게 생각합시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 유혹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은 정말로 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느님의 도움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자신 있고 교만하더니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부끄러워 눈물을 흘린 베드로 사도의 대조적인 태도를 회상합시다.

라) 유혹은 우리의 덕성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람에 적응된 나무의 뿌리가 더 강하고 든든한 것처럼 유혹을 겪어 다져진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더욱 건강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 유혹은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데, 공로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번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월계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투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고 물리쳐야 할 적이 있어야 전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유혹의 기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유혹을 당해서 겸손해진다면 유혹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래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원조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 패배하였지만 신약시대의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은 사막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며 하느님을 상대로 불평을 하고 음식에 대해 불만을 하고 마침내는 교만한 생각을 지녔습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같은 유혹의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시며 만형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도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하여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예수님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힘차게 물리칩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칩시다. (1967년)

사순 제2주일

창세 12,1-4ㄱ ; 2디모 1,8ㄴ-10 ; 마태 17,1-9

거룩한 변모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마태 17,4).

사순절 동안 충만한 빛과 행복을 누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시민’ 이 되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을 자주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곳에도 결국 세 개의 천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대와 고해소와 제단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천막은 모세의 것인데 현대에는 성당에 있는 독서대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나 모세는 천막 밑에 앉아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 하고”(출애 18,12) 하느님이 주신 규칙을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독서대를 볼 때 우리도 야곱처럼 “야훼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느님께서서는 독서대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이다”(2고린 5,20)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루가 10,16)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듯이 여러분도 독서대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어린 예수님에 관한 시메온의 말을 경청하고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였듯이 우리도 독서대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합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루가 2,19-51).

그러나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주시는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은 복되도다”(시편 1,2)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음식이 우리의 몸을 이루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되도다”.

둘째, 엘리야를 위한 천막은 고해소를 의미합니다. 이 예언자는 고행을 많이 하신 분으로 남자 수도회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싶고 하늘 나라를 열망한다면 죄악이 여러분 안에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영혼을 정화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더 믿음과 겸손을 갖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는다면 보다 더 빨리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갖가지 약점이 점차적으로 치유되는 동시에 유혹을 물리치는데 큰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소는 “하느님이 계신 곳(창세 28,16)”입니다. 사제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마태 9,2) 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곳에서 예수님은 기쁨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는 평화와 건강을 얻게 됩니다.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과 교회가 우리를 고해소로 초대하니 우리는 이 천막을 찾아갑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천막은 예수님의 천막으로 제단과 감실을 의미합니다. 사제의 손에 의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은 감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밤낮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잠언 8,31). 우리가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이 계신 건물 안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만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체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옷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질 뿐 아니라 그분을 먹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혼자 계시게 하지 맙시다. 수녀들 중에는 불필요한 방문은 자주 하면서 성체를 방문하는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미사에는 참례하지만 얼마나 열성으로 봉헌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수녀님들! 사순절 동안 이 세 가지 천막으로 자주 오십시오. 이 곳에서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며 성녀가 되기에 필요한 은총

을 얻읍시다.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준비합시다.(1978년)

사순 제2주일

창세 12,1-4ㄱ ; 2디모 1,8ㄴ-10 ; 마태 17,1-9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우리는 지금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슬픈 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며칠 후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에 관해 듣게 될텐데 그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는 의도는 예수님의 수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느님이십니다.

1.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간 예수는 어떤 분으로 비쳐졌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노동자로, 바로로 사도에 비교해 학교도 못 다닌 무학자였습니다. 그분이 형을 받을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무력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이사야 예언자는 “그는 몰골이 망가져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이사 53,14) 라고 인간 이하의 참상

을 말할 정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교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1고린 1,23)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참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일 수 없다”고 하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2.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동시에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체성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감추어 계시듯이 그분의 친주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모 때는 잠시동안 우리에게 당신의 친주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실로 이 영광은 본래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것을 숨기신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놀랐으며 조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모 당시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들이 이해하였습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알아보거나 하였습니까? 이분들은 구약시대에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다가올 수난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수난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예상하신 일이며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루가 24,26) 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갈바리아산과 타볼산에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갈바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매를 맞아 퐁퐁 부었으며 침뱀음으로 더럽혀졌고 가시관에 찔려 흐르는 피와 온 몸의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반면 타볼산에서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갈바리아산에서는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았으나 타볼

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습니다. 갈바리아산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고 유대인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셨으나 타볼산에서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성인인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계셨습니다.

모든 신자들도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수난의 고통을 겪고 십자가와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볼산의 변모 사건 조금 전에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이 실패한 줄 알고 아연실색하여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교 갈바리아산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타볼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하느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새로운 인간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제차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마태 17,9).

형제들이여, 우리가 목표하는 새로운 인간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은 인류의 역사 안에 이미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스스로 힘든 훈련과 고초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장차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장래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면서도 멋진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인 동시에 이 약속을 이미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주공간에 아무리 높이 올라간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구원된 사람들은 훨씬 더 높으신 하느님의 찬란한 품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

운 것이었지만 결국 십자가를 통해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와 갖가지 우리의 수고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겹겠지만 내일에 가서는 모든 것이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1973년, 1981년)

사순 제3주일

출애 17,3-7 ; 로마 5,1-2.5-8 ; 요한 4,5-42

사마리아 여인

오늘의 복음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몇 주일 동안 끊임없이 묵상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약 십오 분 동안 세 가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1.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 영혼의 상징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한국에서도 불란서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우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고있는 여자인데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로 그들을 배신자로, 천한 민족으로 무척 업신여겼습니다. 이 여자는 또한 ‘죄녀’이며 창녀로 취급받는, 생활이 문란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간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나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 안에 부끄러운 면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상 천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서원식날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 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돈과 쾌락과 자기의 뜻으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나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창녀가 아닙니까?

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인물입니까? 성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가련한 사람, 죄녀를 기 다리고 계셨군요! 그리고 지금 이 감실에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 십니까? 성녀입니까? 아닙니다. 볼품 없는 소비녀들, 죄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울 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그 곳으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도록 하시고 울 것을 예견하 셧습니다. 모든 일이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녀원에 오게 된 것도 역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 의 표정에는 순수함과 어지심과 온화하고 위엄이 두드러진 반면, 사마리 아 여인의 표정은 불륜과 무례함과 물욕에 찌들어 호감을 주기가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보다 낫다고 생각합 니까? 그 여인보다 더 순결하고 하느님께 예의바른 우리라고 생각합니 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 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2. 예수님은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 셧습니다. 그곳까지 걸어서 오셔야 했고 정오의 한 더위로 땀을 흘리셨 으며 먼길에 지치셨습니다. 이러한 수고로운 준비 후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교 하셨습니까?

가)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수도자 중에는 부자나 지식인들하고만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대하기를 꺼리는 수도자들이 있지만 소비녀들은 예수님처럼 우선적으로 죄인들, 가난한 이들, 미소한 이들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선량하신 예수님은 주는 사람 입장이기보다는 “물 좀 주시오” 하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갈바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같은 요청을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더욱 가깝게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나) 예수님은 이 여자처럼 세상의 재물에 대해 말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는데 열중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즉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물을 청하신 뜻은 실은 그의 마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것이 샘물인 줄로만 믿었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 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말씀이 종교, 믿음에 관한 것임을 어렵듯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만 아직도 그는 샘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차원을 말씀하시는 반면 이 여인은 물질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전교할 때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서는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육자는 항상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짓지도 못하는 병어리이면서 집을 지킨다는 개들과 같다”(이사 56,9-11) 고 그릇된 목자들을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로 말하였다” 하시며 그 여자의 솔직성을 칭찬하였습니다.

라) 마침내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느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대화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 이 여인은 ‘메시아’를 언급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예수님은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신분을 밝히셨는데 어떤 귀족에게도 부자에게도 학자에게도, 심지어 당신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이 가련한 죄녀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느님 은총에 의해서이며 그분을 믿는 근본 이유는 그분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안에서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성을 높혀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너무도 이 세속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

이 여자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황홀해서 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심과 자기 죄에 대한 회한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여자는 “메시아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분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안드레아가

자기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요한 1,41) 고 한 것과, 또 바오로 사도가 예수를 만난 후 즉시 전교활동을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수녀님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회개의 때이며 예언자들이 알려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죄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기쁨으로 형제들에게 메시아를 알려야 할 때입니다. (1972년)

사순 제3주일

출애 17,3-7 ; 로마 5,1-2.5-8 ; 요한 4,5-42

사마리아 여인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대지가 말라 갈라지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막을 횡단할 때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황금을 주고라도 물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물은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에게 인간의 약점을 피하게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피곤함, 수고, 목마름, 배고픔, 고통과 죽음 같은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견뎌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걸어서 갈릴래

아에서 사마리아까지 뜨거운 햇살을 이고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이 곳 여자에게 “물좀 주십시오” 하고 청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1.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항상 주시는 분인데 오늘 복음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이 청하십니다. 오늘은 물을 구걸하시고 다음엔 십자가 위에서 역시 “목마르다” 하고 물을 구걸하실 것입니다. 또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자유를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물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주는 분이지만 도움을 청할 줄도, 받을 줄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목마르니 물좀 다오” 하고 청하십니다.

형이상학적 하느님은 욕심이 없으시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구걸하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시기 전에 한 여자의 승낙을 얻어야 했고 오늘은 그의 목을 축이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우주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그분이 인간인 우리와 꼭 같은 분이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며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꿈엔들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2. 수녀님들!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인생이란 주고받는 것이며, 봉사 받고 봉사하고 사랑 받고 사랑하는 데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갑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도 좋은 일이나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기만 하는 부모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기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선생과 학생간에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나도 여러분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실업자들, 불평불만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더 많아지는 이유는 대화와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이 물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도 가장 좋은 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은 세상에 완전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이 우물로 물을 길으러 와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사랑의 갈증은 여전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여자는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말을 꺼내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 주겠지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이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고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첫머리에서 예수님은 더위에 지치셨고 목이 말라 물을 청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수녀님들, 이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복음화

에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여 빛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입장에서 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아무 것도 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빛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세자처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십니다”(요한 1,26) 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자렛사람 예수입니다. 참 행복에 대한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행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

사순 제4주일

1사무 16,1ㄴ. 6-7. 10-13ㄱ ; 에페 5,8-14 ; 요한 9,1-41

태생소경

교회는 가끔 빛을 노래합니다. 성모자헌축일과 성도요일, 주의공현축일과 바로 오늘, 사순 제4주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세 독서에서는 빛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고 하였고 제2독서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셨으며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에게 빛을 주시어 눈을 밝아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요한 사도는 심오한 교리 일곱 가지의 기적만을 선택하여 기록하셨습니다.

1.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를 지나시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생소경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사람

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라고 하시고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란 뜻입니다. 즉 ‘가서 보냄을 받은 자의 샘에 가서 씻어라. 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라’ 는 의미입니다.

진흙을 이용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범상치 않게 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재료로 쓰신 바로 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제2의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치유받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 일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시작한 창조사업을 계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아직 신앙의 빛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2. 기적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실은 이 소경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소경을 보고 모두들 얼떨떨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수군거립니다. 소경은 사람들의 질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치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서 어떤 이들은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아니다” 라는 의견대립이 생기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성전 문에 있던 그 소경이요? 그가 정

말로 태생소경이란 말이요?” 등등의 질문을 한 다음 마침내는 그 부모를 호출하여 질문을 해보지만 부모는 역시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낮게 된 경위를 본인한테 다시 듣기로 하였습니다. 소경은 다시 이야기를 반복하여 “그 분이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비꼬는 투로 응수하자 그들은 화가 나서 소경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 동안 이웃사람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심문하여 벌인 조사는 예수님께 집중되었지만 예수님은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정체불명의 인물이요, 신비에 싸여있는 분이었습니다. 소경은 용감하게 말은 했지만 실은 그도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나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경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으니 즉,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경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만나 뵈옵기 소원하였으며 치유반기를 원했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은총으로 그에게 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참 지식을, 곧 하느님을 아는 천상지식을 주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빛을 보기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

경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본인이 다 본다고 말하는 실명자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신 의사의 진찰을 거부하는 소경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학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 오늘의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밝혀 줍니다. 즉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창조사업을 계속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지위로 높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어두움의 행실을 버리고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너는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1975년)

사순 제4주일

1사무 16,1L. 6-7. 10-13ㄱ ; 에페 5,8-14 ; 요한 9,1-41

태생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할 때마다 자기들 허락을 받고 자기들 입회 하에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참된 기적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보면 세 종류의 조사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웃들이 한 조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부모를 상대로 한 조사, 그리고 소경 본인을 심문한 조사입니다.

1. 첫째 조사는 이웃사람들의 조사로서, 이 눈을 뜬 사람이 과연 동네에서 자기들이 늘 보아온 태생소경인가 아닌가 하는 조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바로 나” 라고 하자 이웃사람들은 더 이상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본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건에 더 이상 복잡하게 말려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조사인데 이들은 이웃 사람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를 합니다. 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고,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며

그의 자식인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태생소경을 치유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 교계제도의 특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기로 정하고,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질문을 되풀이하여 지치도록 괴롭힙니다. 그러나 소경은 정말로 너무나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예수님을 찾아가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2. 이웃 사람들과 소경의 부모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발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소경을 저버렸고 부모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게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며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읍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은 단지 지적 행위가 아니라 의지적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기적은 기적일지라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결단내기를 회피하다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웃들 역시 이 사건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으며 부모들도 이 권력자들과 말썽을 부리고 싶지 않아 기적 사실을 기피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들의 비리와 썩은 양심과 두꺼운 가면이 두려웠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택하였습니다. 빛을 두려워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아직 잘 붙어있는 이 가면을 꼭 눌러 쓰자” 하는 식입니다.

3. 이 복음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전환을 보게 되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은 소경이 되고 소경이었던 사람은 보게 되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표정에서 기쁨이 없는 그늘진 모습과 불 꺼진 창과 같은 그들의 눈을 보고 놀라서 실망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빛나는 눈동자와 형제적 사랑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실로암 연못보다 더 원천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고 세례의 은총을 얻었으며 우주만물의 최종 목표인 ‘하느님’ 을 직접 본 것입니다.

사순 제5주일

에제 37,12L-14 ; 로마 8,8-11 ; 요한 11,1-45

라자로의 부활

예수님은 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하셨지만 라자로의 부활은 당신 자신의 부활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며 모든 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바로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한 번 더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부활시켜 주셨으나 복음에서는 다만 세 가지의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막 숨을 거둔 야이로의 딸과(마르코 5,35-43) 무덤으로 가고 있던 나인이라는 동리에 살던 과부의 아들과(루가 7,11-15) 그리고 라자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라자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적은 지극히 놀라운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믿었으며 유대인들도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위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항상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며 영적 진리(doctrine)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주 복음에서 태생소경에게 기적을 행하신 뜻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빛을 따르도록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킨 기적이냐(요한 2,1-11) 보리빵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마태 14,1-12)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키신 기적 역시 당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부활을 예고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 자신의 영적 부활과 영혼의 생명과 그리고 은총에 의한 새 삶을 깨우쳐주려 하신 것입니다.

수녀님들! 오늘 라자로의 죽음보다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죽음과 송장이 바로 ‘나’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소간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별로 열심도 없고, 많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하기에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는 너무도 커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느님 홀로 살아 계신 분이므로 인간은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은 사람과 인형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의 헤아릴 수 없는 죄와 원죄로 인하여 또한 우리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몸일 뿐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느님

과 떨어져 생명을 잃고 죽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단지 흠으로 빚어진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하느님만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고 악취 나는 시체처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만과 분노와 부정함을 보실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라자로의 육체가 죽은 사람이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 바오로 사도,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회개하기 전에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죽었다가 부활한다’ 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잃었던 생명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목표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며 진리이다”(요한 14,6) 하셨습니다.

하느님만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 되는 성화 은총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생명의 은총을 주시려 하였으나 아깝게도 그들은 거부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잃었던 은총을 되찾아 주시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은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자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부활한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하여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자로처럼 살고싶다면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의 회개와 라자로의 부활을 비교할 때 마리아

의 회개는 훨씬 더 귀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육신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덕으로 그분과 하나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우리들의 선행은 예수님의 선행이 됩니다.

며칠 후면 예비자들이 세례를 통해 생명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날 무렵 우리 죄인들도 회개의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화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하여 은총의 생명을 누립니다. 죄를 지어 은총을 잃고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어서 빨리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합시다. (1978년)

사순 제5주일

예제 37,12L-14 ; 로마 8,8-11 ; 요한 11,1-45

라자로의 부활

지난 주일에 태생소경의 기적에 대한 강론을 들었고 오늘은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이 두 기적은 서로 일치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 베타니아라고 불리는 마을에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와 마르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끔 그곳을 들르시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타니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습니

다. 빨리 와 주십시오” 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즉시 떠나지 않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납니까? 그리고 보면 나자로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신 사건으로 이 기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라자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은 베타니아로 향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을 때 길에서 먼저 마르타와 마리아를 만나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타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생소경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태양의 물리적 빛이 아니라 하느님의 탁월한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여자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참 생명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영적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시어 돌을 치우라 명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염포에 싸인 채 라자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라자로의 죽음을 도외시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빨리 가보지 않으시고 죽기를 기다리신 듯이 나흘 후에야 가셨으며 더욱이 “라자로는 죽었다.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자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 부인할 수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2. 예수님의 이 비상한 행동을 통해 당신이 하느님이며 인간인 두 성

의 소유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일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고 하느님으로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느님으로서 기도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잘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요한 11,42).

예수님께서서는 인성을 통해 인간의 약함과 감수성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바쳐 …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11,33-34). “예수께서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정과 마음 아픈 심정을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했던가 봅시다” 하며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성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절대적 권한을 가진 하느님이시며 인류와 결합하신 인간이십니다.

3.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으니 라자로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므로 모순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빛에 대한 개념도 하느님의 빛과 과학자들의 빛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보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곧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라자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라자르가 무덤에서 나올 때 염포로 묶인 채 나왔습니다. “손발이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는 염포

로 싸여 있지 않았으며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지만 라자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자로는 다시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자로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지 않으신 것은 당신이 육신의 생명을 다시 줄 수 있고, 육신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지만 이 두 부활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육신의 죽음에도 생명을 다시 넣어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영혼의 죽음에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에제키엘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또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로마 8,9).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을지라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1975년)

부활 제2주일

사도 2,42-47 ; 1베드 1,3-9 ; 요한 20,19-31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이나 “여러분에게 평화” 하고 사도들에게 인사하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맨 처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불만 중에 사십니까? 평화는 어떻게 얻는 것이며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평화란 무엇입니까? 먼저 거짓 평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평화는 현세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많은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재산을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며, 재산을 잃으면 큰 고통을 받는 다” 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평화는 사람들의 존경이나 애정을 받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흔히 허락될 수 있습니

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2디모 3,12)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평화는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고통을 피하여 살 수 없으므로, 평화란 고통에서의 제외도 아닙니다.

넷째로, 평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죄인들의 불감증 상태도 아닙니다.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범죄할 때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은 마음의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참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으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안정된 조화와 질서” 입니다. 이 질서는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며 화해하여 하느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육체가 영혼에 복종하고 영혼은 하느님께 복종할 때 인간은 질서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에서 질서가 파괴된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 하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2.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화는 하느님이 자유로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고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죄의 기회와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법을 잘 지키며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마카상 1,63 ; 하 7,2) 의 자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세상의 재물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을 끊어버립니다. 욕 성인처럼 우리도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

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욥 1,21) 라고 합니다.

평화를 간직하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한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의 판단이 여러분을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축원하신 평화를 살기 위하여 하느님의 섭리를 확고하게 믿읍시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아 주시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합시다. 어떤 수녀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소비녀들의 일을 일일이 참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자기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흔들여 놓기 일쑤입니다.

끝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사막에 오래되어 낡고 버려진 사원이 있었는데 이곳에 수도승 몇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원 내부에 오래 된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한 수도승이 매일 아침 이 우상에게 돌을 던지고는 저녁이면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수도승이 말하기를 “내가 인사를 해도 욕을 하고 돌로 쳐도 이 동상은 꿈쩍도 안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도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 제2주일

사도 2,42-47 ; 1베드 1,3-9 ; 요한 20,19-31

고해성사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1-23)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고통을 받으셔야 한다면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난으로 많은 공로를 마련하시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공로를 나누어주시는 방법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세우시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자 곧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실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사죄권에 대하여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으나,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 고해성사를 세우신 것은 참으로 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통해 죄인이 부활하고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감탄할만한 성사이며 대단한 효과를 지닌 성사입니다.

첫째,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며 성화 은총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성사로 악인이 천사로, 죄인이 성인으로 변화되며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보고 천사들이 기뻐하나(루가 5,10), 지옥에서는 악마들이 매우 원통해 합니다. 그러므로 악마는 죄인이 고해성사를 받지 않도록 방해하며 수치감을 주어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모교해를 하게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부정하도록 충동질하며 사제에게는 고해성사 주는 일에 싫증을 느끼도록 부추깁니다.

둘째, 고해성사로써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고해성사를 타당하게 받는 사람은 확실한 구원을 얻고 천국행 입장권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셋째, 고해성사로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로 참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습니까?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루가 11,24 참조). 세관장 자케오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루가 19,9) 하셨으며,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과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스며들어온 여자는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아 넘치는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죄에 따라서 영벌이나 잠벌을 받게 되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벌은 면제되지만 잠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우도’ 라고도 하는 소위 ‘착한 죄수’ 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였기에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루가 23,43) 라는 약속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죄를 지으면 그 동안 모아온 모든 공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정성껏 잘 보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잃었던 모든 공로를 되돌려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회상해 보십시오. 잃었던 비단 옷을 되입혀 주고 반지를 끼워 주고 새 구두를 신겨 주어 당신 아들의 품위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여섯째,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우리 영혼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반복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영혼의 치료제일 뿐 아니라 예방약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고해성사는 우리의 악습을 고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젊었을 때 화를 잘 내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화가 났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받은 결과로 마침내는 유순함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확한 사람도 순결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를 잘 교육하려면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다만 그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성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됩니다. 정성껏 성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되므로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은총의 기쁜 생활은 다른 이들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건강한 육체를 얻게 되므로 질병에도 강하게 됩니다.

아홉째,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여러분에게 평화”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를 의미하며 고해성사를 정성껏 보는 사람은 자기 직무에도 충실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된다면 다툼도, 범죄도, 도둑도 없을 것이며 각자가 선행을 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 보십시오. 아마 가톨릭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자주 보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모든 이가 고해성사를 자주 본다면 경찰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요, 교도소도 필요 없는 곳이 되며 사

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법, 즉 하느님의 법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이 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아마도 사제가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보다 더 존귀합니다. 사제는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 권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의사가 “이 약을 드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그 약을 무조건 복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의사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영혼에 병이 들었으니 이 약을 먹어라. 즉 고해성사를 보아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세주께서 흘리신 피로 목욕을 하면 병을 온전히 고치고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모님께 성실한 고해성사를 받고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청하십시오.

부활 제3주일

사도 2,14. 22-33 ; 1베드 1,17-21 ; 루가 24,13-35

엠마오로 가는 순례자들

어느 날 고통에 지친 부인이 나를 찾아 왔습니다. 이 가엾은 부인은 지난 3개월 사이에 네 살 된 아이가 익사를 하였고 십육 세 되는 맏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으며 남편은 암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선하신 하느님을 섬긴 대가가 바로 이런 불행이란 말입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저러한 불행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 앞에서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신앙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존재하는가? 하느님이 과연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온갖 전쟁이나 사고나 불의를 용납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들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는 의문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반항과 슬픔,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무와 허탈로 차서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실은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심정을 갖게 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를 향하여 걷고 있던 두 제자는 이런 면에서 고아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스승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어 왔는데(루가 24,21) 무력하게 죽으시니 그분께 걸었던 믿음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처럼 이 두 제자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시어 그들이 꾸밈없는 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불신을 거칠게 비난하시며 “너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한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루가 24,27). 이들은 차차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현세적 체면을 잃으셨지만 아버지 앞에 전대미문의 사랑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며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일생 동안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느님 나라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어떤 사제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열망하던 그런 하느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제는 숨을 거두려는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실은 이 순간에 예수님은 착한 우도에게 하셨던 “오늘 네가 낙원에 들어간다” 라는 약속을 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제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느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부인은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변함없이 굳은 믿음을 간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잃은 남편과 아들들을 다시 만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주막에서 행하신 것처럼 미사 때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동석하시고, 빵을 나눌 때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요한 15,13).

우리는 미사 중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시오”(1데살 4,13) 라고 하였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슬픔은癒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 제3주일

사도 2,14. 22-33 ; 1베드 1,17-21 ; 루가 24,13-35

엠마오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 실망한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서의 말씀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음으로 빵을 나누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축성된 빵은 하느님 현존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두 가지의 증표로 보게 될 터이니 통회하여 우리 마음을 정화합시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참으로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 이 두 제자의 심정을 상상해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그분께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큰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틀 전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에 잠겨 침통한 기분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큰 기대가 물거품처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지금 모든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들과 비슷한 상황을 맞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와 좌절, 피해와 근심, 고통과 죽음 앞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의 늪에서 생각을 거듭할 때 예수님은 서서히 그의 곁으로 다가오시

어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것들 다 아시고 그분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호소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세적 문제에 골몰하여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2. 절망에 빠진 두 제자의 문제는 믿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의 뉘를 잃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을 보았는데 이들이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루가 24,22-24)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한 신앙을 지적하시며 “참, 아둔하구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것에 그렇게도 굵튼 사람들 같으니(루가 24,15)” 하시고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다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그 첫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고 성실하게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섭시다. 그분은 말씀(성서)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들, 특히 젊은이들은 성서를 읽고 생활 나누기 등으로 신앙을 키워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미리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솟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이사 55,8).

3.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은 빵인 성체를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성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표징이며 신앙의 큰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빵 안에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믿으십시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처럼 근심 걱정애 사로잡혀 사는 우리라면 엠마오로 돌아가 과거에 살던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성체를 생각하면 비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있고 고통도 있으며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덕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루가 24,32) 하고 말할 만큼 성체성사의 은총으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4.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은 사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침묵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와 성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미사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파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는 요청은 더 이상 이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여러분의 미사(산 제물)를 시작하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오! 모든 본당과 수도원에서 신자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자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 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사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대수롭지 않는 인간적인 일에 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한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삶의 고달픔과 고통으로 찢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여러 가지 인생고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성소 주일

전 세계에서 오늘을 성소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요나를 부르시어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들이 범한 큰 죄악 때문에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여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통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쳐서 다르싯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 거센 태풍으로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얼마나 양심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소명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대답하시자 그 청년은 마음이 괴로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심한 가책을 느껴 자살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도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

게 근심하느냐?” 고 물어 보셨는데 그들이 슬펐던 이유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소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성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성소를 받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있으니 결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큰 은총이요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1. 우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성소(사명)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 독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가지신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무 속에 그냥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며,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장난삼아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지성 자체이므로 뜻이 있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스스로를 위하신 분이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소명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된 물질에만 관심을 둬으로써 행복하게 살지 못하며 인간의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니 애석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을 옹호하지 않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과 이 세상으로부터 악마를 쫓아내고 아무런 장애 없이 당신의 왕국을 자유롭게 세우시

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일치하여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노력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며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협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신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느님이 미리 마련하신 섭리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로서의 우리 소명은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평생 동안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면 쓸모 없는 인간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현대판 노예들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신자는 무익한 신자입니다. 사과나무의 소명은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내어 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불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옛날에 요나 예언자를 지켜보던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분은 못마땅하게 보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언자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니느웨가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지상에 모든 곳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성소)을 제대로 산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며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3. 수도자들인 우리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지니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소명을 지녔다면, 수도자들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소명으로써 특수한 소명입니다. 하느님은 일반 신자들로부터 받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수도자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

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뽑았습니다”(요한 15,16) 하신 것처럼, 하느님만이 주인으로 포도밭에 일꾼을 보내십니다(마태 20,1-2).

이 성소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마태 19,11). 하느님께서 바오로에게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사도 22,10)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들에게도 “어느 장상, 어느 사제에게 찾아가보라” 고 타일러 주십니다. 자유로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 하느님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히브 10,9) 하고 응답합시다. 또한 사도들처럼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마태 19,27)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순명하여 떠납시다.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이들, 불구자들, 노예들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은총을 받고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지만 우리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마치 유다의 자리에 마티아를 뽑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성소에 따른 생활은 가장 아름다운 희생제물을 봉헌하는 생활입니다. 예전에 하느님은 불완전한 동물을 제물로 바친 카인이나 기타 유대인들의 희생 제물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 하느님은 우리를 못마땅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소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와 함께 우리 성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정신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거 합시다. 우리에게는 후회란 있을 수 없고 오히

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픈 우리의 원의를 보여주시다. 그리하면 해마다 성소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생기가 넘치며 마치 지상에 알이나 씨앗이 무한히 많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하느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소자가 많지 않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탓임을 명심하십시오.

부활 제4주일

사도 2,14 ᄃ. 36-41 ; 1베드 2,20ㄴ-25 ; 요한 10,1-10

세 유형의 목자

예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는 양도 많고 목동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자에게 목장 주인이 양 스펀 마리 내지 백 마리를 맡기면, 목자는 맡은 양들을 기르고 풀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 이리나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전 우주를 돌보시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정치인, 부모, 선생, 장교, 회사의 관리자들, 그리고 신부와 수녀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목자들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목자를 세 가지 부류, 즉 강도와 같은 목자, 영리만을 추구하는 목자, 그리고 착한 목자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강도와 같은 목자는 하느님이 자기네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오로지 착취하고 잡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 목자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권력의 남용도 허용된

듯 강자는 어떤 짓을 해도 무방한 듯 행세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마치 자기 소유물인 듯 아이들을 학대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이나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폭력과 처벌로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공장에서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나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힘든 노동을 시키는 폭군같은 공장장이나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부하 사병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장교들이 있는가 하면 본당에서는 모든 일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주임신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나만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따르고 순종만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악한 목자들입니다. 수녀들도 목자인데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둘째, 영리만을 추구하는 목자들이 있는데, 강도가 훔치고 목조르고 파괴만을 생각한다면 영리만을 쫓는 사람은 일은 하되 돈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거나 곤란을 겪게 되면 다 팽개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이들은 말은 양들에 대한 유대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특히 한국에서는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관공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생업을 시작한다던가 건축을 한다던가, 다만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도 공무원들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라 가라 요구하는데, 흔히 서류들이 서류함에 서 잠자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큰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 노인들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업신여기는 목자들은 일을 잘하건 못하건 매월 같은 봉급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착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를 강도같은 목자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목자에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하며 동정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합니

다. 더욱이,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착한 목자는 강도처럼 자기 양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며 사기꾼처럼 소홀히 다루지 않고 오히려 충만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시며 양우리의 문이십니다. 문을 지키시는 성부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만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맡은 양들을 하느님의 친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 사람들은 온전히 자유로와져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며 그들의 집으로서 빛의 충만 속에 기쁘게 사는 곳입니다.

강도는 숨어 다니고 어둠 속에서 일하며 사기꾼은 어디를 가든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요한 10,6) 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이십니다. 세상은 폭력과 욕심으로 몰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과 봉사로 채운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모든 사람이 한 목자, 한 우리 안에 모여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1981년)

부활 제4주일

사도 2,14, 7, 36-41 ; 1베드 2,20-25 ; 요한 10,1-10

착한 목자와 착한 양

예수님은 참으로 착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그분은 진실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착한 목자이시고 그분의 양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과연 우리는 그분의 착한 양들이나?”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양은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양은 그분을 알아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느님으로, 구원자로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다른 모든 지식도 쓸데없게 됩니다. 아무리 박식하여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학문은 헛되며 때로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 지식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해도 참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태 6,24)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지식

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외적 지식만 가지고 마치 그분의 생을 신문이나 잡지를 보듯이 간단히 보아 넘기는 식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정신과 진리(doctrine)와 원의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그분이 받으신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나의 생의 전부”(필립 1,21) 라고 하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로마 8,35) 고 하였습니다. 무한한 하느님을 배우는 공부는 끝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분의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분의 참 양입니다.

둘째, 착한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볼 뿐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식별할 줄 압니다. 목자는 양들을 부르고 그들의 성화에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목자의 말씀은 많은 성인 성녀를 감동시킨 성서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리하는 교회와 교황과 모든 장상들의 가르침, 그리고 목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성체 조배시에, 성체를 모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착한 목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평화와 고요와 순결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이 지나치게 바깥 세상에 관심을 두고 방심하면 산란하여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성녀 데레사에게 “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그들 가운데 내 말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도취되고 자만심이 강하여 순종하기 싫어하고 장상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기 때문

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곳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의 허상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앞서 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6)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 길은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분이 가신 가난과 순명과 순결의 삶을 살려고 경주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양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다보고(루가 9,62) 마치 히브리인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 양파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에집트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 버리고 떠난 속세를 못잊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필립 3,18)이며 고통의 적들입니다.

이 미사 동안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양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다고 거짓없이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거짓 없는 자기 성찰을 하고, 만일 전에 여러 번 그분을 떠났었다면 그분께 용서를 청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착한 양으로 그분을 따를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양 우리’ 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예수님께 청합시다.

부활 제4주일

사도 2,14ㄱ. 36-41 ; 1베드 2,20ㄴ-25 ; 요한 10,1-10

예수님은 문이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나는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에 대한 묵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문’과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의 ‘문’의 역할입니다.

첫째, 신약성서에서 일반 사람들이 문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고쳐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중에 어느 문은 ‘아름다운 문’ 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묵시록의 끝부분에 보면 매우 화려하고 빛나는 도시와 같이 찬란한 천국을 본 요한 사도는 “그 도시에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개의 대문이 있었고,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묵시 21,11-12) 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마태 7,14) 고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에게 문은 큰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유적 중에 주요 문화재로 남아있는 건물의 대부분은 거의가 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은 부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약 백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의 왕궁은 ‘고귀한 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문의 크기는 그 주인의 권력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문은 또한 집을 의미합니다. 문이 없는 집을 보셨습니까? 우리 생가의 문을 생각하면 행복한 느낌에 잠깁니다. 이 문 안에는 따뜻함과 평화와 행복이 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문은 주인을 상징합니다. ‘지옥문’ 하면 악마를 상징하고 ‘문지기’는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외부와 차단된 감옥의 문같은 것이 아니라 넓고 자유로운 공간과 통하는 정문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건물에는 대문, 즉 정문과 소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문은 일꾼이나 하인, 배달원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정문은 주인과 그의 자녀들과 손님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문은 정상적인 출입구입니다.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거나 강도이다” 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문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무엇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대단히 큰 집이나 큰 도시로 보시고 그 곳을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곳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 곳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문지기다”라는 의미는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허락을 받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는 마치 양의 우리와 같다. 나는 착한 목자이고 여러분들은 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닫힌 천국의 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과 십자가에 죽음의 덕분으로 다시 천국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부활축일은 천국의 문이 다시 열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귀족들처럼 큰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셋째, 우리는 형제들간에 서로 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성세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한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신 것처럼 신자들도 문이 되어야 하며 수도자인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묵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열 두 개의 문에 열 두 사도가 서 있다고 하였으니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로부터 구원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합니다. 세세대대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녀인 여러분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마리아를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셨다가 하늘 나라로 오르셨으니 우리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이 마리아 안에 결합되었으니 참으로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십니다.

사랑하옵 예수님,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악한 표양과 게으름으로 악한 이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장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 제5주일

사도 6,1-7 ; 1베드 2,4-9 ; 요한 14,1-12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한 준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요한 14,5).

3주 후에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세례 때 같은 성령을 받았고, 견진 때에는 성령의 은혜를 더 확고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령께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시는 일을 살펴봅시다.

1.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정신, 생각, 마음, 성격, 그의 기질 등을 들어 그 사람됨을 평가하며 호전적이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기주의다 하는 식으로 각자의 성격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독자적이므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둘도 없습니다. 이런 성격 형성은 그가 태어난 나라와 자란 가정, 사귀 친구와 교육 정도,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며 각자의 성격이나 경향과 취향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과별들의 존재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좋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 인간이기에 취향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 변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친부모의 영향하에 형성된 성격이 양부모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의 기술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새 직장 정신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2. 성세를 받은 그대에 우리는 하느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에 하느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며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 곧 아버지이신 하느님 가족에 입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곧 예수님의 정신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에페 4,23-24).

예수님은 대기업, 곧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기업체에 고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사업을 계속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몇대르가 아니라 업주이신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며 꾸준히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성을 꼭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여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그분과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 속에 들어가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에 젖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초창기의 세례는 바로 침례였습니다.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 정신 안에 들어가 새로이 창조됨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재생’ 되고 ‘소생’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성사는 잠정적인 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성령 안에 잠기면서 성령의 소리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 회사에 고용된 기술자가 새 직장의 이념을 거부할 수 있듯이, 자유를 가진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을 언제든지 거부(마태 12,32)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 하느님 성령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의 성령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께 순종하려면 우리 ‘형제’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방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립보에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냐?”(요한 14,9)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가) 아버지께 대한 자녀의 ‘효심’ 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주 생각하며 가능한 한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효성 지극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나) 하느님의 성령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정과 기쁨과 일치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일은 대담하게, 소신껏, 두려움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희생과 노고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악의와 사도들의 몰이해와 당신이 체포되고 처형될 것을 내다 보시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외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더 알고자 하면 ‘예수님의 행복선언’(마태 5장) 을 다시 읽읍시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타인을 생각합시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에페 4,30) 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의지와 일치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였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에페 4,23-24).

부활 제5주일

사도 6,1-7 ; 1베드 2,4-9 ; 요한 14,1-12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을 보내신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고 성체성사와 신품성사를 세우신 직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요한 14,2-3).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여쭙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5-6) 고 대답 하셨습니다.

1. 오늘 미사 복음 구절의 초점이 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모든 이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진리 자체라고 당신과 진리를 동일시하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곤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가) “나는 길이다” 고 하신 다음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미사 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는 양우리의 문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길이며 안내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나는 진리입니다” 하시고 덧붙여 “당신들이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완벽한 모상이시요,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알기만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를 아는데 충분합니다.

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11, 25-26)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하느님과 결별하여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 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합시다. 만일 우리가 타종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거침없이 말한다면 그들은 거부감을 가져 우리를 불평하고 논쟁을 벌일 것이며 교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며 남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 이시며, 절대로 저버릴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만 비신자들과 대화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사랑으로,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칠 때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모퉁이 돌’ 로 표현하였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1베드 2,4).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이 귀중하고 값진 돌이며 각자의 운명이 이 돌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 돌을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인 바위가 됩니다. 이 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겨레,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1베드 2,6-8참조).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마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매우 거만하고 독선적이며 듣기에 거북하고 교만한 자들의 말로 들립니다. 오늘날의 예수님 제자들은 더더구나 승리는커녕 어느 정도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범생도 아니며 그들 중에는 죄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같이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시던 때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로 신도들 간에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도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도를 쓰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사도 6,1) 고 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소간 박해를 받고 짓밟히기도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극찬하였습니다. 그때에 신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 사도들이 개입 해야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교만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 왕다운 제관들, 거룩한 겨레, 그분이 차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였을 때도 허풍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하느님 홀로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니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으며 우리 약점을 고치도록 노력하며 서로 참고 견디면 “하느님의 말씀은 점차 널리 퍼져 나갈 것”(사도 6,7) 이요, 주님을 믿는 남녀들의 수효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돌이 되었으니 잘 다듬어져 좋은 작품이 됩시다.

부활 제6주일

사도 8,5-8.14-17 ; 1베드 3,15-18 ; 요한 14,15-21

신앙과 온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현실적인 우리들의 어려움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요한 14,18).

겸손하고 부드러우시면서도 의지가 강한 예수님은 쉽게 화를 내시지 않고 매우 침착한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의 행동을 비판하고 욕할 때나 수난 시, 그분을 매질할 때에도 예수님은 대꾸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실 때, 당신을 믿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어린다운 신뢰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1.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언제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낮게 되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

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마태 8,8-10) 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애원하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마태 15,28) 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으리라고 믿은 하혈병 환자에게는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마태 9,22)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달라고 청할 때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뿔나 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루가 17,6) 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마태 21,22)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물위로 걸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물위를 밟고 걸어가다가 거센 바람이 불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마태 14,31) 하시고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이 탄 배가 호수에서 일어난 거센 풍랑으로 뒤집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마태 8,26)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루가 24,25) 하시고 제자들의 불신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요한 8,56)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들까지 모두 아브라함을 신앙에 있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탓에 조금만 의심해도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불러도 왜 아무도 대답하는 이 없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너희를 구출할 힘이 내게 없단 말이냐?”(이사 50,2) 라고 구약시대에 이미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갖고있는 믿음에 따라 정해주십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1베드 5,7) 하였고, 특히 바오로 사도는 그의 서간에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2.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학자나 교수나 권위자로서 가르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만 아주 단호하게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요한 8,24) 는 말씀을 하셨을 뿐 언제나 부드러운 어조로 우리들에게 신앙을 요구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녀들에게 애정을 기울이면서 말하시는 아버지처럼, 또는 동생들에게 말하는 형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가리켜 당신의 아버지며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 간다”(요한 20,17) 고 하셨고 기도할 때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로 부르라고 하셨으며 오늘 미사 복음에서는 “내가 당신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엄한 어투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마태 23,37) 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언제나 온화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나

는 착한 목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입니까? “하느님 나라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부인과 같다…” 이보다 더 부드러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 11,28) 하셨고,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머니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9,15)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겁을 주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어린이다운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확고하고 결함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3. 오늘의 세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나 약할 뿐 아니라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수난을 받으실 때 사도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걸 보면 사도들 역시 가끔은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를 볼 때, 악인들이 승리하고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국법에서나 학교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볼 때, 신앙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볼 때,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 냉담하는 신자와 환속하는 사제를 볼 때 우리도 흔히 실망과 슬픔으로 우리의 신앙이 꺼지려 하지는 않습니까?

오! 수녀들이여, 용기를 되찾아 보십시오. 아버지께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은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돌

아옵니다”(요한 14,18)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보다 위대한 약속, 위대한 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권능을 가진 분으로 마치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처이긴 것처럼 예수님도 힘센 무신론자들을 물리쳐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어느 학자보다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칭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태 6,8). 선택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고 지금은 성체성사로써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주실 정도로 착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비록 당장 먹을 게 없다해도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수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업이 아니라 생활로써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도 변절하지 맙시다.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경고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이며 변덕스럽지 않은 믿음입니다. 풍랑 중에서도 평온했던 복녀 아숨다의 믿음과 같은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믿습니다만은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가 17,5) 라고 기도합시다. (1975년)

부활 제6주일

사도 8,5-8.14-17 ; 1베드 3,15-18 ; 요한 14,15-21

교회 안의 성령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성령을 묵상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라”(필립 2,5) 요구하시면서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은 다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주일 강론 후에 ‘사도신경’ 을 노래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니체아신경’ 을 노래하는데, 이 니체아신경에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요, 성령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속성들은 이론상의 속성들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정교회로 분열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하나’ 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소간 죄인들이기에 교회는 ‘거룩하다’ 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는 보편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 해도 교회 안에 사도들의 그 선교적 열성이 매우 식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지니기를 원하시며, 성령께서는 항상 이 이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계십니다.

1. 성령께서는 교회의 단일성을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동일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생각해 봅시다. 기능이 각각 다른 사지와 눈과 귀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다른 묘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그 하는 생각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때가 되면 야당이다, 여당이다 하며 서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자기의 독특한 사상이 있게 마련이며 이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동일성을 원하시기보다 통일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세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아들딸이 되었으며 한 분이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한 형제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청하십니다.

2.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성을,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점차적으로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부유해지고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는 욕망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자로 살으셨으며 언제나 나약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유혹은, 수도 없이 들은 말이지만 구습에 집착하고 침체의 늪에서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서두르느냐? 왜 관례를 바꾸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게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잃고 모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쇄신과 개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공의회가 소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성령은 교회가 보편적 교회, 세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약자들과 억압당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문화를 포용해야 합니다. 지주나 노동자들, 농민이나 예술가들을 포용해야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하며 선교사업에 열성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만 신자들만 돌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제가 많은 교구에서는 선교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선교에 관한 사명의식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며 성령께서는 항상 이 사업에 열중하도록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4. 성령은 사도적 교회를 요구하십니다.

‘사도적 교회’란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도들처럼 선교에 열성적이며 창의성이 풍부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부활축일 이후에 매일 미사독서로 사도들의 활동과 그들의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별명은 ‘성령에 관한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을 분발시켜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유재산을 처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생각을 불어넣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태의연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동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답게 사

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내려 온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안에 일치와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선교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교황과 주교와 일치하고 있으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장차 한국의 교회가 지니게 될 모습은 우리의 태도와 정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면 교회는 마비되고 불구의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면 교회는 생명력과 활력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자동차나 버스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네 개의 바퀴, 즉 일치성, 거룩함, 보편성, 그리고 사도전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 기사는 성령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니 그분만을 잘 따라 갑시다. (1978년)

연중 제2주일

이사 49,3.5-6 ; 1고린1,1-3 ; 요한 1,29-34

일치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입니다.

요르단 강가에 서 계신 세례자 요한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물골이 몹시 여위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으며, 수척해질 정도로 단식해 온 세례자 요한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사람이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있는데 그들 중에는 요한과 안드레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세례자 요한의 눈에 띄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오신다”(요한 1,29) 고 외칩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으로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신자도 일종의 사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신자는 사제도 중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사제나 또는 중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하며 둘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셋째,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1.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책임 맡아 하는 사람이요,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관심사를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어린 예수님은 당신을 찾던 부모님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가 2,49) 하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처럼 하느님의 일꾼이 되신 수녀님들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이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 또 있느냐?’ 란 의미인데 우리도 “하느님과 같은 분이 어디 또 있느냐?”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변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원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선언하였기에 일반 신자들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그분의 도구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도구로서 세례자 요한처럼,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오신다” 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신자들보다 하느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

다. 나는 신부로서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제로서 성체를 축성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대사제는 타인을 위하여 뽑힌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신자들은 물론 수도자들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만들며 그들을 성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한 이는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참 보기에 안 됐다”(마르 8,2) 고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던 전날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9) 라고 하셨습니다.

3. 중재자가 되려면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첫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염두에 두셨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으며, “내 교회”(마태 16,18)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탈한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도 사람의 일꾼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단절된 채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다른 여러 가지 성사를 받으며 교회로부터 과전을 받아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한을 받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그리스도의 신비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비신자 마을에서 나 혼자만이 신자라 해도 나를 통하여 교회가 그곳에 현존하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서도 루르드에서 발현하셨을 때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벨라뎃다에게, “가서 신부님에게 일러라, 내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녀 여러분! 우리는 수도회를 위하여 혹은

어떤 장상을 위하여 혹은 주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1972년, 1981년)

연중 제2주일

이사 49,3,5-6 ; 1고린1,1-3 ; 요한 1,29-34

오늘 복음구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나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요한 1,31) 라는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친척간이었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아는 사이로 서로 자주 만났고, 요한의 출생지 아인카림은 나자렛과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으므로 두 어린이는 분명히 서로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몰랐다고 했을까요?

요한이 한 말의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외적으로 알지만 그분의 참 신분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다” 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분에게 세례를 드릴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야 그분의 참 신분을 깨달았으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심을 알았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부터 자백해야 합니다. 수도자나 사제인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느라 오

랫동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르칠 때 마치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열두 사도들도 예수님을 잘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 또는 하나의 친구로 알았다가 점차로 예언자나 뛰어난 사람으로 알았을 뿐,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오신다” 고 요한이 한 말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린양을 친진난만함과 온순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연례축일 중에서 가장 큰 축일은 유월절(과월절, 해방절)이었는데 이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양을 서로 나누어 먹는 순간이었습니다(출애 12,1-4). 이 행사는 여러 가지를 회상케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였습니다. 에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어린양의 피가 구원을 위한 표시였고 하느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출 12,13). 재앙을 피하여 에집트에서의 노예생활(강제 노동)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여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 오신다” 고 한 말은 예수님을 해방자, 구원자, 구세주로 천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비참하게 흘리신 피를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을 위하여 어린양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해방을 위하여 예수님이 치루신 격한 싸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 이라고 한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아끼시지 않고 악과

싸우신 분이요, 우리가 악과 싸울 때마다 우리의 편을 들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느님의 어린양이 오신다” 고 한 다음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라고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의미가 없는 소규모의 교전이 아니라 아주 큰 전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남자고 여자고 악의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서 대항해 주시니 이는 우주적 전투인 것입니다. 악의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곳에 출동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죄’ 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 곧 죄 자체입니다. 마치 하느님이 한 분뿐이시고, 인류가 하나뿐인 것처럼 아무리 여러 가지 죄가 있다해도 총체적인 죄는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죄를 자기 혼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선행이 인류 전체에 이로움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저지르는 악행도 인류 전체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자 요한은 또 한 가지 신비로운 말, 곧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요한 1,14) 는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육 개월 전에 탄생하였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형이 됩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요한 1,30)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한의 동생이 되겠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형이 되십니다. 한 인간의 탄생보다 하느님이 인간으로 나시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니체아신경에는 예수님을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서서 성부와 한 본체가 되신다” 고 고백하는데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우리 인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점차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차차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나 시간을 초월하여 당신을 대리할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구성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믿느냐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현존하시는 모습이며 예수님의 신비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으므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도 인간이며 동시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어리석은 판단을 그치고, 하느님이 하시는 것처럼 온 인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처럼 말을 하고 어린이처럼 판단해 왔으나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어렸을 때의 것을 버리고(1고린 13,11 참조) 하느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시다. 세례자 요한과 이사야 예언자와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더욱 더 정확히 알아보고 그분을 타인들에게 소개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해야 할 일입니다. (1978년)

연중 제3주일

이사 8,23L-9,3 ; 고린 1,10-13,17 ; 마태 4,12-23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젠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바다물의 영향으로 시원하였으며 햇살 역시 강하게 내려 쬐었지만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까이 그들의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그들의 집과 부모가 살고 계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참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겹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도 아름다운 고장에서 살았고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 같은 마을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들 근처를 지나시다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고장

을 떠나 오늘 이곳 수녀원에 모여 살고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도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각자 직업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자기네 고장 이외의 다른 곳을 생각할 줄 모르는,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멀리 보고 더욱 큰 생각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넓은 세상과, 호수보다 훨씬 큰 바다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직업보다 훨씬 중요한 요청임을 인식하고 자기들의 재산인 집이나 배, 그물이 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들은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계문제는 염려조차 하지 않고 자기들을 부르신 예수님께 완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인류구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호숫가를 떠나 하느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들의 조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을 떠났지만 하느님은 더욱 방대한 영혼의 가정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망설임도, 주저함도, 지체하거나 아쉬워함도 없이 뒤돌아 보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할 때 장난삼아서 한다던가, 잡다한 일에 얽매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투신하던가 그만두던가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나 자신에게 너무 집착해 있다면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자신을 포기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봉사하게 되고 더욱 사도적 자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을 포기하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마태 6,24 참조) 하느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맹인처럼 어둠으로 가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 묻지 않고 고락을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가난하며 부지런한 생활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제자답게, 수련생답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곳 수녀원에 올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니 그분의 것이 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일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다른 예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그리며 생활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창세 17,1)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걸어라” 하십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따라 오라” 하신 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다른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미사 중에 특히 영성체 때 우리 서원을 갱신하고 초창기 사도들처럼 언제나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1978년, 1981년)

연중 제3주일

이사 8,23L-9,3 ; 고린 1,10-13.17 ; 마태 4,12-23

예수님의 활동 시작

나자렛에서 조용히 사시던 예수님은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전교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운동’이 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시기는 요한세자가 체포되던 때라고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르짖는 사람은 하느님의 대변인이 체포되었을 때 용감하게 그 일을 떠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예수님은 전도사업에 착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렬한 기도로 예수님께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도록 청합시다. 해야 할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1. 전도사업을 시작하신 그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은 나자렛을 떠나 가파르나움으로 거점을 옮기셨습니다. 나자렛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외딴 곳인데 비해 가파르나움은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변화한 소도시로서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가려는 경우 모두 이 가파르나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시리아인, 희랍인 등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시기 원하셨으므로 이 장소

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원하십니까? 조용하고 따뜻한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 예수님,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자리를 옮기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보내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2. 예수님이 강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원죄 이후로 인간은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악 중에 살며, 악마의 노예가 되어 너무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첫머리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계획에 관하여 다섯 가지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잘 들어봅시다.

첫째,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결하고 충격적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결코 이 세상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가까이 계신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이 왕국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현존하며 이 왕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느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합시다.

셋째,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 오라” 고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명령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이 구원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버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따라오너라” 하고 부

르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회당 안에서, 우물가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잠시 상상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의 고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질병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없애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업계획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제자를 택하고 복음을 전하며,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3.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은 “죄에서 해방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악한 예언자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해방과 행복을 제시합니다만 저마다 그 제시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해방, 공산주의를 통한 해방, 성의 해방, 경제적 해방, 정치적 해방 등등을 주장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폐는 사회적 구조나 체제가 아니고 인간 자신이며, 질병 자체보다 인간의 마음(정신)을 병이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각자는 자기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회개가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활동거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표와 계획은 하느님 나라를 실제로 세우는 것이며 하느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한 세상의 변혁을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숙고하면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있는 돈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직책상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오늘 하느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마음속에 하느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면 양심이 무뎠진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셔도 ‘내 생활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므로 나에게서는 매우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생활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음을 안다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용감하게 일을 시작하십시오. (1978.1.22)

연중 제4주일

스바 2,3. 3,12-13 ; 1고린 1,26-31 ; 마태 5,1-12ㄱ

진복 선언

지난 주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전도활동 시작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신 말씀과 “나를 따르라” 하시며 몇몇 제자를 부르시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며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어느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사상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이 첫 마디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듯이 하느님의 눈길은 사람의 눈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걸만 보거나 조금밖에 볼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더 넓게 보십니다. 각자의 내면을 보시는 그분은 산 위의 균중만 보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성당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능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원으로부터 생각해 온 것이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는 인간의 통념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큰 ‘행복’을 약속하시면서 아홉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 못하시는 예수님은 행복의 길이 결코 쉬운 길도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어찌하여 고통을 예찬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까? 정말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까? 그 이유는 이 지상에서의 고통이란 우리 구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란 세 가지 이유에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가) 지성과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고통은 이 자유의 대가이며 이 자유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느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섬기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하느님만이 빛이며 기쁨이며 생명입니다. 하느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슬픔과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죄의 희생자는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죄인 자신 때문입니다. 범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부정하고 자기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면 하느님께 대한 우리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랑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께 대한 사랑이 더욱 자라고 그분을 위한 우리 사랑이 더 진실한 사랑이 되며 십자가의 길에서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 중에 하느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세상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요한 마리 비안네 성인은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느님은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연약하지만 고통에 단련된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때에 우선 포도알을 으스러뜨려야 하듯이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기 위하여 하느님은 우리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느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권고하십니다. 성인들이 고통을 받기를 원하고 고통을 달라고 기도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 고통을 통하여 우리 영혼은 정화되고 하느님과 일치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하느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모마리아처럼 하느님께 “예”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고통이나 수고를 원하신다면 “예” 하고 응답해 드립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행동이나 순명하는 행위나 사랑의 행위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예” 하고 대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 하고 응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 하고 순명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은 그분을 부활 시켜 주셨습니다.

나) 고통은 은총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드높아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 구원의 한 몫을 맡게 되며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 정화된 인간을 보실 때 하느님은 감격하십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가르치지만, 고통은 그들의 구원에 이바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요한 12,24).

다) 고통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에게 기쁨과 천국을 얻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가 24,26) 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모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던 제자들도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 사도를 회개시키실 때, 아나니아 사제에게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직접 보여 주겠다”(사도 9,3)고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진리(doctrine)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 중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병원으로, 영혼의 병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은 물욕으로, 이기심으로, 육정으로 그리고 악마의 작용으로 병들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과 온순함을 좋아하고 눈물과 고통과 박해를 달게 받으시다. 진리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2고린 12,10). (1978년)

연중 제4주일

스바 2,3. 3,12-13 ; 1고린 1,26-31 ; 마태 5,1-12ㄱ

고통의 이점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주교이든, 군의 장성이든, 학교 교장이든, 수도원의 장상이든 각자 해야 할 책임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삼십 년 전부터 생각해 오셨고 하느님으로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최초의 설교 중에 그 계획내용을 밝히셨는데 바로 우리가 들은 오늘의 복음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기본 사상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큰 행복을 약속하시며 마태오 복

음에서 아홉 가지 참 행복을 제시합니다만 이 행복을 얻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르며(이사야 55,8 참조) 참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참 행복은 가난과 순결과 순명과 고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보수는 여러 가지 고통입니다. 때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보수는 무엇보다 고통입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수도자로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느님이 심술궂으셔서가 아니라 1) 우리를 교육하시고 2)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3)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째, 고통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은 자유와 지성을 가진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를 가진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란 악과 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일 수가 없으므로 로봇일 뿐이며, 언제나 좋은 것만을 선택할 것이므로 인간 자신의 공적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에게 나쁜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느님 홀로 빛과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시므로 하느님 편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슬픔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느님과의 잘못된 관계,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되고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참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랑은 언제나 회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우

리 사랑은 더 커지고 진실되게 자라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둘째,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통이 없다면 이 세상을 떠나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영원하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마리 비안네 성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다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십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압착하여 으깨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이 고통받기를 원하고 고통을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고통은 사실상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정화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아니오” 라고 하는 것이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예,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러한 긍정적 응답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예”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구원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인답게 살아온 슈브리에 신부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고통은 그들을 구

원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결과를 거두게 되고 부패를 가로막으며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고 천국의 기쁨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시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 모두가 순교하는 고통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개종한 직후에 예수님은 아나니아 사제에게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사도9,1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기본사상을 밝혀주십니다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병원에 가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병원으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물욕과 이기주의와 정욕과 악마의 영향으로 깊이 병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일도 훌륭한 사업이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난과 순결과 박해를 사랑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1981년)

연중 제5주일

이사 58,7-10 ; 1고린 2,1-5 ; 마태 5,13-16

빛이 되시오

“너희는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오늘 예수님과 바오로 사도와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사도직 수행을 요청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란 하느님의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전교활동을 하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됩니다. 전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즉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며 하느님을 증거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으며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

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서 우도와 백인대장과 그 밖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본 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인 성녀들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했으며 부패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성생활을 하는 우리 수도자들은 다른 신자들보다 더욱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수도자들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표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직이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은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의 활동을 본받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발견한 이후로 이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참 별은 바로 예수님으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 별은 또한 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학교, 자선사업장과 같은 외적 사업을 사도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도직 수행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수도자의 모범적 생활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선교사들의 학문도 아니며 선교사들의 열성도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다.

사도직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의 예수님입니다. 어느 날 신자 안에서 외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외교인들은 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외교인들이 신자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사도직이 잘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에페 3,6). 우리는 무용한 종, 작은 여종,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교사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비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한 송이 장미꽃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2고린 2,15). 그리스도인의 빛은 한 개인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사도직은 일종의 전투이며,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교만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한 편에는 인간들을 위한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편에는 인간과 악마의 교만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세상 시초부터 시작되어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사상 가장 큰 전쟁입니다. 승리는 어느 편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에 비하면 국토확장을 위하여 일으키는 인간들의 전쟁은 아무 것도 아닌 어린이들의 전쟁 논리에 불과합니다. 싸울만한 진짜 싸움은 사랑의 승리를 위한 싸움뿐입니다.

둘째, 그러면 수녀들이 수행해야 할 사도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착실한 수녀의 생활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은 그가 세운 건물, 학생들의 수, 상급학교 진학률에 따라 평가되고 또 본당신부는 신자 수와 사업량에 따라서, 수도원장은 수련자 수와 전회원 수, 건축물 등에 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주 잘못된 기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해 왔지만 통계표의 숫자들은 사도직 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치란 성과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며 나머지 모든 것은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수도자는 일차적으로 교사도 간호사도 아닙니다. 수녀는 다른 일반 여성과는 달리 결혼도 재산도 자유도 포기하고 항상 다른 자매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동정녀들입니다. 수녀는 가난하고 순종하며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도생활을 기쁘게 살 때 그 수녀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그때 사도직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녀가 불평불만과 교만으로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그 수녀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직이 아닙니다.

수녀의 사도직 수행은 기쁘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녀가 순종과 순결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기쁨 중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수도생활의 행복이 그들의 행복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나 자유나 부부생활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수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왜 저렇게 살까? 아무 재미도 없는 생활 같은데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은 과연 존재하신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하며 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자답게 살기보다 돈에 혈안이 된 세인들처럼 살며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곧잘 타고 다니는 수녀들을 볼 때, 또한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사도직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므로 선교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게 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더 훌륭한 수도자가 되도록 매일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972. 2. 6)

연중 제5주일

이사 58,7-10 ; 1고린 2,1-5 ; 마태 5,13-16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의무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진복선언, 즉 하늘 나라의 법률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써 설명하십니다.

첫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소금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여 언제나 호감을 주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두어야 합니다”(골로 4,6)고 요구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사제는 영세자에게 소금 맛을 보게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식을 방지합니다. 소금은 또한 상처를 소독하기도 하고 꺼져가는 불을 소생시켜 다시 타오르게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없다면 세상은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재만 수북하게 쌓여 쓸모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것인가?” 곧 “그리스도 신자가 신앙이 식어버리면 무엇에 쓸 것인가?” 하고 질문하시고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고 예수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신자를 경멸할 뿐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는 더 이상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세인은 그들을 도외시합니다. “신앙이 무엇에 쓸모가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예수님은 “신앙이란 삶에 맛을 주고 하느님을 갈망하게 해준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둘째, 성서에 소금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빛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성서의 첫 장에 “빛이 생겨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시편 18장 29절에서 “당신은 곧 나의 등불, 내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라는 말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에페 5,8)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루가 2,3) 이시요 “만국의 빛”(이사 42,6) 이

신 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세상의 빛”(요한 8,12) 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작은 등불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의 집은 한 칸으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작은 등불이라도 온 집안을 밝히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렇다해도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지 뒷박으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박해시대 지하무덤 안에서 살았던 옛날 로마 교회처럼 현대교회도 드러나지 않는 교회, 발언하지 않는 교회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의 교회, 지하교회로서 박해 때문에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침묵을 지키면 복음은 곧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작은 등불을 손에 들고 있으면 온 집안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고 하셨습니다.

셋째, 산 위의 마을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해발 1050m의 산이 있고 이 산꼭대기에 ‘사팻’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시면서 이 산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큰 변화에 시동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군중을 만나기 위하여 군중 가운데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 위의 도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마태 16,18) 새 도시요, 죽은 돌로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도시일 것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새 도시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그리스도의 새 성전입니다. 지

하무덤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적절한 장소가 못 됩니다. 물론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순교자의 피는 교회 발전에 필수적인 밑거름이지만 교회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 의무를 힘껏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81년)

연중 제8주일

마태 6, 24-34

섭리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섭리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여러분에게 섭리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신앙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사도신경). 우주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돌보시며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서에서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펼쳐지며 모든 것을 훌륭하게 다스린다”(지혜 8,1)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실감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동물과 초목을 돌보시는 하느님께서 하물며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 들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마태 6,26-29). 하느님의 섭리는 얼마나 위대한지 가장 자비로운 임금님의 보살핌보다 더 크고, 우리들의 아버지 중에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보살핌 보다 더 자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능력엔 한계가 있어서 자녀들이 자라서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배려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깨닫게 됩니다.

2. 하느님의 섭리는 논리적으로 증명됩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그 창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주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모든 존재는 하느님께 온전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명에 의하여 허락되고 마련되고 조정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하느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일은 결국 하느님의 진지 전선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신다면 그분은 지력도 없는 것일 테고, 또 우리의 비참을 아신다 해도 그것을 치유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선하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당신 모습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 무관심할 수 있으며 우리를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나 미신자일 것입니다.

3. 경험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 계절의 질서라든가 우주 안의 조화나 천체의 운행들이 하느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매일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사도 17,28)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어 두셨다”(마태 10,30)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하느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은 모독이며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신자도 아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신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그 섭리를 입증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하기보다 매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말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1티모 6,10) 라고 했고 오늘 예수님은 “음식이나 의복 걱정을 왜 하느냐” 고 하십니다. 실은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데 수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편에서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 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시편 119,113)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자 엘리야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1열왕 18,21)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면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연중 제9주일

마태 7,21-27

반석 위에 세운 집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마태7, 24-27).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집을 갖기를 희망하고 또한 자기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옳게 살아가는 일은 그보다 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지나간 일ियो 이미 완성된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느님은 창조하신다” 라고 현재진행으로 말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현재에도 계속 되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

유한 소명을 찾아 실현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쓰시면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어떤 도덕가는 “인간은 하나의 작업장이며 이 작업장에서 하는 일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조심하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1.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환상 위에, 돈 위에, 영광 위에, 덧없는 헛된 것들 위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한다 해도 만일 그것이 말뿐이고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면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항상 사랑을 노래하지만 말뿐이요 허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때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만일 결혼한 자식들이 전혀 부모님을 찾아 뵙지 않는다면 자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과 부양과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당에서 수도자들이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구절은 산상설교의 맨 끝 부분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겔꾸미는 자와 위선자를 비난하십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질색하십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자들이고 수도자들이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악을 일삼는 자들이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고 “너희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희들의 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마태 23,3) 하고 예수님은 타일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은 거짓을 몹시 싫어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돈만을 위하여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젊은이들은 사회와 교회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위선 속에 살고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고 이 집은 늘 불안에 흔들릴 것입니다.

2. 오늘 예수님은 바위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1베드 2,4)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활을 모범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의 자녀의 삶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신자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많은 규칙이나 관습, 그리고 돈 문제와 위선과 겉치레가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건설하기 위하여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형제적으로 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적으로 살아가는 기법을 익혀야 하며, 나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새처럼 하늘을 날고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기술은 배웠으나 아직 형제답게 사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도탄은 개발하였으나 아직 사람을 잘 지도하는 기법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행하시오”(마태 7,12). 이렇게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기쁨 속에 살게 되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충만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연중 제10주일

호세 6,3-6 ; 마태 9,9-13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은 같은 말을 두 번 들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호세 6,4) 고 하신 말씀과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내적 믿음을 권고하면서 아브라함을 찬양하였습니다. 복음구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견책하시고 사도들을 교육하시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1사무 15,22)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니 숙고해야겠습니다.

1.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적 믿음과 내적 사랑, 내적 자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집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므로 당연히 껍질만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잘 다니고 희생 제물을 바치며 헌금을 하고 식사전후에 손을 씻으며 자주 단식하는 것 등입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토라의 400여 개(613)의 법령과 금령을 지켜야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무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복수심을 품 으며, 죄짓는 것을 본 사람만 없다면 ‘스스로 의롭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전교생활 중 항상 이런 악습을 대항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세를 받고 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영세를 받은 신자들이니까, 우리는 수도자들이니까, 매일미사를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큰 죄는 짓지 않으니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 롭게 된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실은 하느님을 믿게 된 몇 년 후에야 아브 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네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백 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 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 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 습니다”(로마 4,18-19).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수도복이나 자선 사업이나 우리의 보속행위와 같은 외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홀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루셨기에 인간인 우리들이 하는 일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불완전하니 하느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

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다만 예수님 덕분이요, 그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 인간사고의 한계성을 살펴 본 후에 예수님의 크신 마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과부가 동전 한 잎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으며, 믿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어느 가련한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난 중 가장 심한 고통을 받으실 때 오른쪽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가 간단한 부탁을 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루가 23,42-43), 세리의 겸손한 기도(루가 18,14)와 소경의 기도(루가 18,42)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믿음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하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루가 17,21).”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마태 6,6).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 6,18). 예수님은 부상당한 불쌍한 여행자를 도와 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루가 10,25-37).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시고, 성탄날 밤에 목동을 부르시고,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고,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가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외적인 선한 사업들도 물론 좋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리와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

니 공로가 되는 것은 외적 선행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들의 내적 믿음과 사랑입니다.

3.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느님을 위하여 일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돈이나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동기가 신앙과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목상을 잘 함으로써, 양서를 애독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봉헌함으로써, 우리 안에 신앙과 사랑이 증가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사이파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요, 우리 마음은 좁아지지 않고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마태오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임종하는 사람이나 어린이, 장상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며 우리도 그분을 따라갑시다. (1972년)

연중 제10주일

호세 6,3-6. : 마태 9,9-13

마태오를 부르심

마태오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도로 자신을 부

르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오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부름을 받고 즉시 응답하였으며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나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매국노, 도둑놈, 부정축재자라는 악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사도로 삼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악표양이었으므로 다른 사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꼬와 루가, 두 복음사가는 마태오를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에 이미 백 살이 된 두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믿겨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에 무수한 후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마태오와 같은 세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오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마태오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던진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두 주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 예수님은 마태오를 부르셨고 그는 큰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과 사도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된 손님들 가운데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마태오의 친구들도 많았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마태 9,10)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편안한 마음이셨습니다.

소도시인 가파르나움에 잔치가 있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잔치 집에까지 왔으나 연회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일리가 있는 질문이었고 우리도 가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라면 의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면 의인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의인이란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의인이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요 수도자들이며 성직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각가지 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즉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 정치노선이 다른 사람들,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들으신 것처럼 호세아 예언자 시대에 ‘제물을 바치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필요치 않다. 나는 병자와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훌륭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십중팔구 성실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아마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다루는 그들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율법을 중시한 나머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회당에서 추방했으며 제명도 서슴지 않았습다. 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처방을 해줍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나를 믿으라” 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2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도 아브라함에게 역시 신앙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로마 4,19-20).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예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대한 진리(doctrine)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강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내가 받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내가 받기는 것은 내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선이다.” 희생제물을 많이 바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너희 사랑은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호세 6,4)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만을 믿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인합시다. 이 영적 병을 고치는 약은 우리에게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백 살이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며 예수님과 친한 관계에서만 우리도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세관원에서 일하는 마태오에게 “따라 오라” 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라” 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안정과 습관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게으름으로 용기 없이 비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시다.

연중 제11주일

출애 19,2-6ㄱ ; 로마 5,6-11 ; 마태 9,36-10,8

노동

창설 당시 수도회의 명칭을 성가 소비녀회, 즉 “소비녀” 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한 수녀들이요, 일하는 수녀들이란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가회 소비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수녀를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휴식시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뜨개질을 하는 훌륭한 수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사 복음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 두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일터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각각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수녀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며 많은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하시고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오” 하고 덧붙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일하라고 당부하셨고 우리에게도 당부하십

니다. 노동의 이점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와 인간이 타락한 주된 원인은 교만이지만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류가 회복되었습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둘째, 노동은 유혹에 대항하는 치료약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1베드로 5,8) 고 하셨습니다. 한가한 사람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만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 악마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한 사도는 다만 한 놈의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게으르고 한가한 사도는 수많은 마귀들의 유혹을 받는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녀는 못 되지만, 그러나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역시 부지런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수녀원에서 편하게 살기 좋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쉽게 빠지는 수녀들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순종하면서 하는 일은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일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하였고 베네딕도 성인은 “일하며 기도하라” 는 좌우명을 수도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한다면 그곳에는 확실히 질서와 평화와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수도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부지런히 일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일치된 노동은 진정한 희생제사이며 하느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제사입니다.

넷째, 보수를 받기 위해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은 일꾼의 근무태도를 유심히 살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느님께로부터 영원한 보상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품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요한 묵시록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더니 성령께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묵시 14,13).

다섯째,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노동은 필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찌들고 녹이 습니다. 노동은 많은 경우에 질병이나 권태감이나 우울증에 대한 좋은 예방책이 됩니다. 근면한 사람은 가정을 기쁘게 하고 유복하게 하며 그 집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허위한 수녀들이 할 일 없이 잡담이나 하고 우스갯소리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이 지원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용기 있고 건강하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마련입니다.

여섯째, 사람들 모두 하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었고 나라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한국 사람들은 용감하게 일어서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오늘날 얼마나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물론 아직도 할 일은 많습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녀원에서도 모든 수녀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수녀회가 번영할 것입니다. 연로하신 수녀님들도 일을 해야 합니다. 나라이건 수도원이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악을 선동하고 조장하지만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곳에는 평화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복음내용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세상 곳곳에

가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여라” 고 하신 이 말씀은 수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거둘 것입니다. 성가회 초대수녀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젊은 수녀들도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하고 같은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가회는 크게 자랄 것입니다. 말로만 소비녀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비녀가 되십시오! 아멘. (1978년)

연중 제11주일

출애 19,2-6ㄱ ; 로마 5,6-11 ; 마태 9,36-10,8

수확하는 일꾼들

지금으로부터 이천 년 전에 예수님은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전교하시며 말씀으로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시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고뇌에 차 있는 것을 아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추수할 것은 많은 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마태 9,36-38) 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면 같은 현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문이든지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가 불안 상태에 있고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으며 많은 근심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분열되어 신자들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지금도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셨습니다. 성서에서 ‘수확’과 ‘수확할 시간’과 ‘거두어들일 곳간’은 천국을 의미하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기쁜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 지극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죄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로마 5,6) 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실패요 재난이며 어처구니없는 고통’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능을 한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느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도직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이 점을 예견하시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르침(doctrine)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밝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추수때가 임박했다는 표징으로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가난보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불안해하고 버림받은 처지에 놓이게 되며 양식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인류의 구원을 참으로 믿는 우리들이라면, 기도는 우리 믿음과 우리 소원을 표현하는 정상적인 수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고 제자들 중에서 열 두 사람을 뽑으셨는데, 마태오 복음사가가 열 두 사람의 이름까지 모두 나열한 사실만 보아도 이것은 거저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직접 선택하여 뽑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며 복음선포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시고 정신을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행동지침과 거의 비슷하니 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먼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훌륭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한 편에는 신음하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편에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계시며 그 사이에 사도요 수도자인 우리가 있는데 하느님과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는 매체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선교 초창기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은 열 두 사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신도 수가 증가하고 교회가 확장되면서 사도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파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파견되는 사람이란 직접 파견된 사람들과, 수도회 장상이나 교구장인 주교나 교황이 파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에게, 다음으로 로마제국에 사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에 보니파시오 성인과, 영국에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보내시고 아찌시에 프란치스코 성인과 프랑스에 빈첸시오 바오로 성인을, 한국에 김대건 성인 신부를 보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도들이 성인들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국민이 기도 중에 청하는 사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래의 사도들이므로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장소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구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연중 제12주일

예레 20,10-13 ; 로마 5,12-15 ; 마태 10,26-33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거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교활동에 보내실 작정이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낭패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세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는 말씀은 좋지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께 관한 이야기나 지옥이라든가 보속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곧 닥쳐 올지 모르는 전쟁문제라든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의에 관한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노동자들의 임금문제, 자유와 권리 문제 등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에 관한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무용한 것이라고, 교회도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세상 창조가 예수탄생 사천 년 전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지구의 자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오를 박해하여 과학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피임약 복용이나 임신중절에 관한 반대 발언을 하신 교황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교리를 강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제들이 예수님에 관해 말하기를 주저하고, 신자들 중에 많은 이들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기원전 육백 년경 예레미야 시대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방금 독서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 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자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며 모의합니다”(예레 20,10). 이처럼 바리사이파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기 위한 궁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비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교를 해야 한다며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치에 근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진리는 결국 알려지게 마련이며 조만간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어라 해도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밝은 데서 전하고 지붕 위에서 외치라”(마태 10,27)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요, 때로는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박해에 시달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도들에게 육체적 죽음이 아니면 영혼의 멸망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므로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은 그다지 중대하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에만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일이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 잘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새와 머리카락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참새는 장터에서 한 푼에 두 마리가 팔립니다. 머리카락 역시 별 가치도 없지만 하느님은 참새도 보살피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참새나 머리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니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보살피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충실히 증거하는 사람은 비록 육체적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직면할지라도 그의 영혼이나 그의 믿음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또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담이 범죄 하였으므로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없애주시고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습니다”(마태 10,32-33) 하시며 두려움 없이 전교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때 아닌 때에 전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말을 못 하거나 인기관리를 위한 침묵이나 안락, 비겁함의 침묵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말하기를 요구할 때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미사 동안 교회와 함께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대담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청합시다. 아멘. (1975년)

연중 제14주일

즈가 9,9-10 ; 로마 8,9. 11-13 ; 마태 11,25-30

겸손

오늘의 세 가지 독서를 듣고나니 교회가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겸손이 하나의 덕목이라기보다 주님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 나오는 즈가리아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가리아가 아니라 그보다 약 오백 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 즈가리아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즈가리아 예언자는 오랜 후에 오실 구세주를 미리 보았는데 그분의 너무나 평범한 인간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라. 보라, 네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다”(즈가 9,9) 고 하였습니다.

바로로 사도는 예수님의 탁월함이 성령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그분의 지력이나 가르치신 이상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랑을 베풀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겸손하고 평범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겸손한 사

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멧을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멧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5-30) 고 가르치셨습니다.

천사와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교만의 죄였으며 또한 이 교만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므로,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겸손으로 무장하셔야 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들 가운데 오신 이상 최상의 지위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참된 겸손으로 인간의 사랑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수녀원에 교만한 수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들, 더 지식이 많고 더 숙련되고 더 현명하다고 믿는 이들로서 스스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너무 훌륭하다고 믿는 나머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을 경배하기를 거부한 마귀의 두목을 모범으로 삼는 이들이며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한 느부갓네살왕을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는 또한 정의를 어기는 사고로서 어떻게 감히 ‘내가 다른 모든 이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감히 남들을 깎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평화를 잃게 되므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에스텔서에서 ‘내가 모르드게보다 더 낫다’ 고 생각한 하만을 보십시오.(에스텔 3장-7

장)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만한 이들을 비웃고 경멸합니다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이 이런 오만한 사람들을 혐오하시고 엄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루치펠’은 마귀가 되고 느부갓네살왕은 짐승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만한 수도자들 중에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수녀들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다른 수녀들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수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동하고 찬사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으며, 이런 이들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수녀들이 나를 존경한다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없는 자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남의 찬사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공로도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버림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마태 6,5)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수녀원에서 교만한 수녀들은 명예와 높은 직책을 갈망하는 이들인데 이런 사람은 허영심에 사로잡힌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많은 근심 걱정과 고통, 다른 이들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하느님 앞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십시오”(루가 16,2) 하실 때 어디로도 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보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성이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요구되는 수행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인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항상 그런 명예로운 자리를 사양하였고 그런

자리를 피해 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수락해야만 할 때는 하느님께 순명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느님이시면서도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셨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애로써 행동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예수님의 겸손을 찬양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립 2,5-8). 이런 겸손한 처신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필립 2,9).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루가 14,11) 라고 하였고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마태 19,30)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생활에 규범이 됩니다.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사랑을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본받고 그분처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교만심과 우월감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본 즈가리아 예언자가 “보아라.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다”(즈가 9,9) 는 말을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로부
터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
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1975년)

연중 제15주일

이사 55,10-11 ; 로마 8,18-23 ; 마태 13,1-23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요구되는 자세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마태 13,23).

주일마다 신자들이 성당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희생 제사인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용서를 청하고 영육을 위한 축복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주일마다 성당에 가는 이유는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다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길바닥, 자갈밭, 가시덤불 같은 사람, 비옥한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려면 우선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당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고 성당 안에서 할 일이 있으며 성당을 떠난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성당에 가기 전에 할 일입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갖추라”(집회 18,23) 고 하신 성서말씀 대로 말씀을 들으러 가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느님은 수 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사실을 생각하여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당에 갈 때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들으려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인간만 본다면 그 말씀은 별 효과가 없을 터이니, 인간이 하는 말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갈 때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루가 10,16)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파견된 사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당에 가는 것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호기심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 사랑 받는 이에게 평화”

둘째, 성서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의무를 더 잘 알고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으며 죄악을 이겨내는 힘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언제나 긴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전에 여러분은 세속의 정신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주의 말씀 통달할 밝은 지력 주소서.” 또는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요한 6,68) 하는 기도와 사무엘 예언자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미사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존경심을 가지고 정중히 들으십시오. 외양간에서 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체성사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천국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만큼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사 때 예수님은 사제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므로, 나처럼 한국말이 서툰 사람의 말일지라도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날에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출애 3,15) 고하신 것처럼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종결부분에서 영성체가 끝나면 사제는 성체의 작은 조각들을 정성껏 모아 영합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체만큼 존중해야 하므로 여러분들은 사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강연을 하면 청중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일 미사 때에 마치 성모마리아와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루가 10,30)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 하시던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깨달았을 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루가 24,32)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사제가 어떤 죄인에 관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언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그 범인은 바로 임금님” 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너도 범인이요 죄인’ 이라고 여기며 뉘우칩시다.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당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사제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하고 숙고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주일 강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길바닥이나 자갈밭과 같아서 하느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서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묵상합시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것”(야곱 1,22) 이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과 올바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로마 2,13) 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지만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태 7,24-26) 고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듣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듣고 실행하는 일만이 옳은 일이다” 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인 씨앗을 앗아갈 뿐 아니라 가라지를 우리 마음 안에 뿌린다는 사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이 강론을 수 없이 들었습니다만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천국은 강포한 자가 차지한다”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벨라뎃다 성녀는 자기를 헐뜯는 자매에게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여러분이 제 말을 믿게 하는 임무가 아니라 그저 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임무”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되는 우리 각자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중 제15주일

이사 55,10-11 ; 로마 8,18-23 ; 마태 13,1-23

좋은 씨앗

다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씨앗의 관한 말씀도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이 비유는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며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생의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이 가르침에서 자유를 가진 인간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선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반면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한마디 한 마디 살펴보겠습니다.

1.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고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거처하셨습니다”(요한 1,14). 그분의 전 생애는 말씀과 본보기로서 사람들 가운데 참 생명을 주는 진리의 씨를 뿌리시어 아름답고 선하신 하느님을 닮아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전하는 신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들과 기쁨과 진리를 심어주는 사람들은 모두 작은 예수입니다. 착한 부모님들, 교육자들, 비신자들 가운데 살면서 좋은 표양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가서 만민에게 가르치라”(마태 28,18) 하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번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

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씨를 심는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 씨를 심는 사람이 못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씨앗이 즉 우리의 일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세운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가 언제까지나 남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요한 15,16) 라고 하셨습니다.

2. 씨는 “하느님의 말씀”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라고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사람인 동시에 씨 자체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은총을 주시며 특히 성체성사를 베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씨로 뿌리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역시 사도들과 교회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루가 10,11)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황과의 일치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착실한 신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좋은 서적과 잡지 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그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영적독서를 애독하고 그 책들을 이교인들이나 냉담자들에게 읽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면 하느님께서 그 씨가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씨가 되는 동시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됩시다.

3. 예수님은 씨가 네 가지의 땅, 곧 길바닥, 자갈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 가지 유형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길에 비유되는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상업, 오락 등에 골몰하여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심사에서 벗어나 진지한 명상을 하지 않아 씨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리고 새들이나 보행자로 묘사된 마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떨어진 씨를 결국 쪼아먹고 밟아서 죽게 합니다.

자갈밭과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묵상도, 기도도, 독서도 하지 않아서 걸만 번들하고 뿌리가 약하여 유혹이 오면 곧잘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을 뿐더러 게으르고 중상모략하며 언쟁하기 좋아하는 불순한 사람들로, 이런 토질에 하느님의 좋은 씨가 자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맑고 투명한, 가난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옥한 땅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갖고 숙고하며 좋은 독서로써 지식을 얻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십 분이라도 묵상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좋은 결실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어느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맡은 일뿐 아니라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열 명의 후배를 양성하지 못했다면 나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사제인 나는 그 동안 후배 신학생 발굴과 양성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성가회 소비녀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후배 발굴과 양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1972년)

연중 제16주일

지혜 12,13-19 ; 로마 8,26-27 ; 마태 13,24-43

교회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회단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회주의와 비슷한 단체로 보는 사람도 있고 119 긴급구조대와 비슷한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었지만 인간이 세운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세워주신 단체이며 하느님과 한 몸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 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인류사회와는 별개의 사회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고 할 때는 인간적 추론이 아니라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씨로 존재했던 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또, 교회는 서 말 밀가루에 넣어 반죽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는데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립니다. ‘서 말’이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세 개의 큰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교회들은 서서히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에는 변화시킨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영상입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다. …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다. 그러자 쇠, 놋쇠, 금, 은으로 된 사람 전체가 한꺼번에 부서져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 자취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다”(다니 2,31-35). 다른 예를 들면, 에스텔의 아버지 모르드게는 꿈에 “작은 샘물이 솟아 산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물이 점점 커져 큰 강이 생겨나 물이 넘쳐흘렀다”(에스텔 10,6). 이 모든 비유들은 교회를 예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을 펼치시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신앙을 알리고 교회를 정착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하느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하고 약한 한 인간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삼십 년 동안 노동자로 숨어 살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얼마나 깊으십니까?”(시편 91,5)

예수님이 전도생활을 시작하실 때 박식하고 권세있는 사람들을 협력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삶에 찌들고 무식하고 수줍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삼 년 동안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몇몇 제자와 몇몇 부녀자들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초기 교회는 작은 씨와 적은 누룩, 작은 돌이나 작은 샘물과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창설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런 사형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여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 한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밀알이나 겨자씨가 땅에 묻히듯이 예수님도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이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몇몇 신도들 위에 내려오시자 무식하고 겁쟁이였던 사도들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 사도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설교를 하였고 믿는 이들이 삼천 명 오천 명으로 늘어났고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을 떠난 사도들은 안티오키아, 로마까지 세상 곳곳에 가서 전교 하였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갔습니다.”

삼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자랐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악마는 많은 이단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혹독한 박해 중에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로마도 예전에는 제왕의 수도였지만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황궁이 있었던 자리에 교황청이 서게 되었으며 제왕들과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흠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나 적은 분량의 누룩, 작은 돌이나 작은 샘에 불과했던 교회가 이제 큰 나무로 자랐고 세상을 온통 부풀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아니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교의 막강한 세력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높은 산맥, 넓고 깊은 강, 광활한 대양이 되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죽음의 힘도 교회를 쳐 이기지 못하기 때

문입니다”(마태 16,18).

여러분! 교회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들어내 보여주는 수녀가 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탐구하고 실천하십시오.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전부 멸망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입니다. 교회 밖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단자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를 반박하고 묵은 사상에 집착하여 시대에 뒤진 사람들이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승리의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만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 오늘 특히 하느님께서 신앙으로 불러주시어 교회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더욱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972년)

연중 제16주일

지혜 12,13-19 ; 로마 8,26-27 ; 마태 13,24-43

좋은 씨에 나쁜 씨가 뒤섞임

“주인님! 밭에 뿌린 씨는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히 악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박해시대에 그러했으며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보고 어떤 신자들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 성실했던 아벨을 형인 카인이 죽였으며(창세 4,4-8)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 형들에 의해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갔고(창세 37,28)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I 사무 18-24).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도 거룩한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도 뒤섞여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악과 선이 공존하는가? 어째서 하느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이 공존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1. 좋고 나쁜 것의 공존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가) 악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좋은 씨만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도 하느님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천사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죄나 마귀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칠성사를 세우시어 하느님

의 은총에 머무르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나) 선과 악이 뒤섞임은, 인간의 적이며 하느님의 적인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악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후로 모든 이가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터전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악신이 와서 나쁜 씨, 즉 이교도, 죄악, 나쁜 표양 등을 심었습니다.

수녀님들!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으로 기원하고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자고있을 동안 마귀는 깨어서 항상 우리를 죄로 유인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곳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고 착한 이들과 사귀고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집시다.

2. 어찌서 하느님께서서는 선과 악의 공존을 허락하셨습니까?

일꾼들이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일꾼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고 대답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고 항상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가) 하느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에제 33장 참조). 하느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하느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죄 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 나는 많은 죄를 지었고 성인들 가운데 나쁜 폴포기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회개할 때까지 그냥 두어라.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두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느님이 것처럼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마태오 사

도는 여전히 도둑이었을 것이고 바오로 사도 역시 교회를 계속 박해하였을 것이며 막달라 마리아도 죄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어서 죄를 많이 지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느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악인이었던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하느님이 좋은 씨와 나쁜 씨의 공존을 허락하신 것은 좋은 씨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착한 사람들의 덕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 믿음과 희망도 굳어지며 위험한 일 앞에서 더욱 신중해 집니다. 특히 나쁜 사람들 때문에 더 선행의 덕을 닦는 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덕분에 아씨의 프란치스코나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와 같은 성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그 악인들을 감화시키고 회개시켜 신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혼합의 시대이니 열심히 일합시다. 가라지가 우리를 덮어 숨을 죽이게 하겠는가? 아니면 좋은 씨가 가라지를 덮어 죽게 하겠는가? 이교인들 사이에 사는 여러분은 이들에게 끌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들을 끌어당기겠습니까? 일터로 나갑시다. 아직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마도 내일은 너무 늦을 것입니다.

3. 이 공존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정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추수 때는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 심판의 순간이며 천사들에게는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분리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영원한 실망과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이겠지만, 천국에, 곧 살아 계신 하

느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환희와 찬미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좋은 씨앗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각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의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 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며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믿는다면 하느님의 인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오래 전부터 당신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회개하시고 보속 하시어 좋은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라지를 심는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우리 모두는 씨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중 제17주일

1열왕 3,5. 7-12 ; 로마 8,28-30 ; 마태 13,44-52

비유

지난 몇 주일 동안 교회는 여러 비유를 통해 ‘하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고, 또는 주인이 좋은 씨를 심었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은 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짧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 하는 꼭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1)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의 비유 2)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의 비유 3) 온갖 물고기가 잡혀 있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나라는 꿈에 그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추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은 주제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에서 보물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은 진주를 찾았는데 둘 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보물과 진주가 묻혀

있는 밭과 진주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귀한 물건을 발견하자마자 마음이 들떠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다급해져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만큼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좋은 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뒤돌아봄 없이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만일 그들이 이 투자에 실패한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모험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자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보물을,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므로 다른 재산과 하느님 나라를 함께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열광적으로 기쁨으로 행동하는 이 두 사람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마치못해서 하거나 어색하게, 근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같은 태도이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얻는 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은 처음에 아무 것도 찾아보지 않다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섭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황홀했지만 흠칠 생각은 없었으므로 보물을 다시 묻고 혼자만 그 비밀을 간직하였으나 별로 잘 한 일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어야 더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밭을 살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비록 그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른 이들을(부모) 섭섭하게 할지라도…!

한편, 진주 장사를 하던 사람은 직업에 따라서 진주를 찾아보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그 역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우리

도 대화를 통하여, 좋은 설교를 통하여, 좋은 책을 통하여 참 진리를, 즉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최상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며 모두가 방해요 무익하며 맛도 중요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물에 대한 세 번째 비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첫 부분은 위로를 주지만 끝부분은 비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앞서 얘기했던 보물이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물에 비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주인이 가라지를 추수때까지 기다렸다 뽑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주가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물을 해변가로 끌어 올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낼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의인들에 대한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 하느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불가마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지난 주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서 불 속에 던져진다는 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좋으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지옥이라는 말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유를 가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 줄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내 말을 거역하면 큰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하라” 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거칠어서 이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도 하며, “우리는 이 세상 이외의 것은 알 수 없다. 영원한 불이라든가, 이를 갈며 통곡한다라는 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말하는 지옥이나 천당을 믿을 수 없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유로운 결단을 내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압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강제로 들여보낸다면 인간의 자유에 저촉되는 것이니 꼭두각시나 자동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옥을 들어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므로 자유를 잘 사용하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 품위인데, 사랑만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품위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하느님 나라는 마치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것과 같다”(마태 13,52) 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알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고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되며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슬기를 주시기를(1 열왕 3,9-12) 청합니다.

연중 제17주일

1열왕 3,5. 7-12 ; 로마 8,28-30 ; 마태 13,44-52

비유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보물과 진주와 그물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는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주나 보석의 가치에 관심을 끌게 하시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나 감추어진 진주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까? 또는 이들 보석을 얻기 위하여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오늘의 복음에서 중요한 말은 “기쁨에 넘쳐있다” 는 말입니다. 사람이 큰 기쁨에 차 있을 때는 그 기쁨이 가장 깊은 곳까지 그를 사로잡아 흥분되고 매혹되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존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서 매혹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이 제 빛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것을 경쾌하게 포기할 각오를 합니다. 기막힌 절호의 기회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관한 비유는 지난 주일 복음말씀의 밀과 가라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는 비유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밭에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던 것처럼 그물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의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는 물론 좋은 직업이지만 몹시 피곤하고 실망을 주는 직업입니다. 그물에는 제일 좋은 고기만 걸려드는 것이 아니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다 해도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 수고를 해도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확실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물은 가득찬 그 때, 곧 세상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그물의 내용물을 선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참을성이 없는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교회 그물 안에 있는 이들은 무거운 짐인지, 쓸모 없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어떤 종류에 속한 자들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마 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란 말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고통의 정도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공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마태 13,52) 하시며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유대인들인 유식한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물함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 보물함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구별하여 꺼낼 것입니다. 이들의 교육은 율법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1981년)

연중 제18주일

이사 55, 1-3 ; 로마 8,25. 37-39 ; 마태 14,13-21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다니시며 설교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배고픔과 피로와 낙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시고 모든 이에게 신기한 빵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빵을 먹은 군중은 배불렀고 힘을 얻었으며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빵은 성체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군중의 일원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 성소를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위로와 힘과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체강복 때 우리는 성체를 ‘천사의 양식’, ‘나그네의 양식’ 이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살아가기 위하여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들도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다만 음식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마태 4,4) 우리 영혼에 필요한 특별한 음식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인데 특히 성체성사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창세 2,17) 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 왔으나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를 위한 음식은 죽음을 막지 못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성체는 살아 있는 빵이며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요한 6,54-55)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성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유혹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던 유혹이며 마귀는 때에 따라 전술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금지된 열매를 따먹도록 설득시키고 우리에게도 하느님께 불순종하도록 예수님이 명하신 열매(성체)를 먹지 못하도록 설득합니다.

2. 성체는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적과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적들은 수가 많고 능숙하며 강한 반면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성체를 영하면 힘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속과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0) 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혹은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은 위협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5-37).

사도들과 신앙의 증거자들과 동정녀들 그리고 수도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오로지 성체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성체를 멀리할 때에는 적극성과 헌신적 봉사정신이 시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성체를 모실 때에는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성체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이 훌륭한 빵인 성체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청합니다.

3. 성체는 우리 영혼의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욥 성인은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욥 14,1)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망으로 지친 인간을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 11,28).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리드비나 성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병마와 삼십 년을 투병하면서 성체의 은혜로 참아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성체를 모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빌라누에바 출신 토마스 주교 성인은 죽을 때 “그 동안 우리를 찾으려 수도 없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겠느냐?” 하였습니다.

수녀들이여!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성체에 대해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홀함에 대한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열성으로 영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이사 55,1-3). 아멘.

연중 제19주일

1열왕 19,9ㄱ. 11-13ㄱ ; 로마 9,1-5 ; 마태 14,22-33

물위를 걸으신 예수 (믿음)

오늘은 주일이기에 미사에 참여하러 온 우리는 평일보다 더 열심히 미사를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만 믿음, 곧 신앙은 무엇입니까?

1. 신앙이란 가문의 전통도 아니며 우리 삶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국가의 풍습도 아니고 특수 교육의 결과도 아니며 미신도 아니고 많은 근심 걱정을 해소해 주는 위로도 아닙니다. 죽음 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보험도 아니고 가면도 아니며 가설도 아닙니다. 신앙은 또한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더욱 단순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한 인간을 믿는 행위입니다. 성세를 받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세때 믿음의 서약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리의 진실성을 따져 확인한 결과 때문도, 누구의 증언을 들은 결과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의 말씀과 그의 행적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평화를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믿습니다. 어린이는 엄마를 믿고 학생은 선생을 믿고 환자는 의사를 믿습니다. 여행자는 비행기의 조종사나 기차의 기관사나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믿으며, 부부는 서로를 믿습니다. 종교에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두려울 것이 없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분의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시자 즉시 그는 물위를 걸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낚게 하여 주십시오”(마태 8,2). 이 믿음은 환자가 의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일 환자가 예수님을 의사에 대한 믿음으로 대했다면 예수님은 고쳐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과학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많이 한 기적 후에 군중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루가 7,11) 고 말했는데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죄인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자존심과 잘 살고자 하는 원의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착한 우도(루가 23,43), 자케오, 마태오 사도, 바오로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요한 6,68) 하였습니다.

3. 이 세상에는 나폴레옹이나 공자님, 레닌, 모택동과 같은 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그들을 신봉했지만 그들도 죽고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기념비뿐입니다. 그러나 저명한 사람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수억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받는 것도 좋으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노예들의 사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는 오게 할 것이다”(요한 12,32)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을 받는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을 받고 몇 시간 후에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사람만이 아니라 수억의 인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초창기 교회 때에 이교인들이 십자가형에 죽은 이를 경배한다고 그리스도 신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1고린 1,23) 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숭배하는 사람은 수 억 명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지만 일단 죽고나면 잊혀집니다.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한 스타들도 죽고나면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도 이들에게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필립 1,21)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찬사를 보낸다는 말뿐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누가 해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시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핵심적인 것은 교리도 윤리규범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살아 계신 인간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께 매혹되어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매혹되어 물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물위를 걸으며, 사람이나 위험이나 익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뒤를 끝까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자마자 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1972년)

연중 제20주일

마태 15,21-28

가나안 여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청하기 전에 쉽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위를 걷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지르자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나?”(마태 14,31) 하셨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은 가나안 여자에게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마태 15,28)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지방 여자는 이교도였습니다.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는 딸을 위하여 도움을 간청하였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매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애걸하며 은총을 구한 이 여자는 마침내 원했던 것

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표면상 무자비한 면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1. 이 여자가 나서서 큰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2. 사도들은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고 하셨습니다. 전에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에도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라”(마태 10,5) 고 당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3. 마르코 복음 7장 24절도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피하려 하신 것입니다.

4.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를 계속 쫓아 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러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비하해서 욕할때 “개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교도들을 이와 같이 ‘개’ 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강아지’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역시 경멸하는 어조가 아닙니까? 하느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느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십니까? 어째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셨으며, 이 여인은 느낌이 없었을까요? 그 여자의 반응이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감동하시어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강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가) 이 여자는 자신과 자기의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는 그의 열정과 열망 역시 우리와 비슷합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보냈을 것입니다.

나) 그 여자는 이교도였으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 이라고 부를 줄 알았으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어서 이 여자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청한 것입니다.

다) 이 여자는 이교도인으로서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 아닌 줄을 알았으며 구원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전체도 이방인들의 구원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만민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의 통로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 여자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애초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라) 이 여자는 좋은 품성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도 모욕감을 느끼지는커녕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적을 요청합니다. 온순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도 없이 하느님의 처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엄숙한 모습을 바꾸어 즉시 그 여인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며 칭찬하셨습니다. 첫째로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도 믿음과 겸손과 향구심과 사랑을 가져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하다 실망하여 기도를 거두었다라면 이 어린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이 여인이 겸손하지 않게 여러 번의 모욕을 감내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어린이가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기도가 효과가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많은 은총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까? 향구심이 부족해서 빛나간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로서는 역부족이지만, 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가나안 여자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연중 제20주일

마태 15,21-28

어제 우리는 성모승천 축일을 지냈으며 복음 말씀에서 미래 어머니가 될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고통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아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마태 15,22) 하고 울부짖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간질병인 듯 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지만 예수님은 못 들은 척만 하시고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성가시게 저 여자가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이 여자는 이방인이며,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찾아 돌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하시고, 더욱이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며 거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민족차별 주의자입니까?

1. 예수님은 가끔 우리를 가나안 여자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였지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나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우리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매년 루르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실제로 고침을 받는 사람은 겨우 한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만 하느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루르드를 떠날 때는 모두가 더 큰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방인들은 마치 강아지처럼 취급당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가나안 여인은 탄복할만한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강아지에 불과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먹지 않습니까? 작은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즉,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청해야 할 어떤 권한도 없음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

줄 어떤 의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동판매기가 아니니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종 분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당신 자비와 사랑 안에 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는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이것이 도움을 요청한 내 소원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깨달으면서 믿음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나머지도 넘치게 받을 것이라고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연중 제21주일

이사 22,19-23 ; 로마 11,33-36 ; 마태 ; 16,13-20

예수님과 교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여러가지 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짧은 대답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밝혔습니다. 곧 “선생님은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기다려 온 메시아이시며 우리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다” 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복음 구절은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별 감동을 받지 못하여 베드로의 말이 예삿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놀라운 말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한 유대인이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소박한 어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경심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사람

들은 ‘야훼’ 를 ‘존재자’ 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하느님’ 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며 나자렛의 목수인 예수님이 실제로 하느님’ 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즉시 설명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 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셔서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자들의 단체인 교회는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요,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는 매고 푸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별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권한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중요성을 교육하십니다.

교회란 어원은 희랍어로 집회, 모임, 단체를 의미하며, 건물인 교회당, 성당은 신자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말합니다. 보편교회, 지역교회, 한국교회란 말은 전 세계 신자단체, 어느 지역 신자단체, 한국 신자단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뜻을 더 깊게 들어가면 교회는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으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하느님께서 세우신 단체입니다. 교회는 장점과 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기에 약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는 영구히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예수

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님이며 하느님 아들의 끊임없는 강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doctrine)를 전파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교회의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도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루가 10,26).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제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며 십자가의 공로를 나누어주시고, 성사를 통하여 활동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갖 은총을 주십니다.

교회는 참 예수님이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보급되고 전달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내 나라 이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한 ‘자애로우신 어머니’ 로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일반 단체들과 같지 않으며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중 제22주일

예레 20,7-9 ; 로마 12,1-2 ; 마태 16,21-27

하느님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함

오늘 미사를 통하여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두 가지 독서와 복음을 읽는데 모두 어려움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첫째 독서를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설교를 해야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반대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였습시다만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꾀에 넘어간 저는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덕에 날마다 옥을 먹고 조롱을 받는 몸이 되어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뺨속에 갇혀 있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예레 20,7-9) 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

아 주실 산 제물로 바치라”(로마 12,1-2) 고 권고하십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하시며 교회의 큰 권한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곳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방금 베드로를 교회의 수반으로 세우신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고통은 마지못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1. 이 세상에서 수고와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여 일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상인이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고 물건을 받아오고 날라주고 시비를 감내해야 합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매고, 풀을 뽑으며,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의사나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매일 꾸준히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와 고통 후에 찾아온 결과

를 보고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매는 많은 고통과 수고의 열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고가 없었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별해 보면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년들은 베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아동들은 받는 처지이고, 청년들은 더 이상 받지 않으려 하면서도 아직은 베풀어주지는 못합니다. 베풀어주기 위하여 어른들은 일을 하고 힘들게 생산해야 하는 반면에 어린이들은 오로지 받기만 할 뿐 일도 하지 않고 고통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와 같은 정신연령으로 언제나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로지 이자만 받아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니 신자라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2. 우리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원죄 이후부터 주인 행세를 하는 마귀를 이 세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직 수행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계명을 지킴으로써 좋은 표양을 보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십시오.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예레 20,7-8). 사도 바오로 역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신자들 중에, 심지어 수도자와 사제들 중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받기를 좋아해서 성사 받기를, 죄의 용서받기를 좋아 하지만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주일 미사 이외에 하느님을 생각하는 때가 없는 이런 이들은 불필요한 신자들이며 때로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 좋은 성과는 없고 영세자도 별로 없으며 냉담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업입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그리스도의 끝없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고통을 기꺼이 겪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자가 된 것은 사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며 순교자들과 부모님, 선교사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일을 할 차례입니다. 특히 우리들 수도자들은 이 선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불편함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세상의 구원에 유익이 되며 우리의 공로가 되니 기뻐하십시오.(골로 1,24 참조). 실은 우리보다도 교회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을 한다해도 우리는 사실상 교황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전교 하러 다닐 때, 병자를 방문하려 갈 때 걷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동안 피곤하겠지만 ‘마음을 드높이’ 분발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어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어여뻐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4-25)

연중 제22주일

예레 2,7-9 ; 로마 12,1-2 ; 마태 16,21-27

1. 마태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이교도들이 사는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마태 15,21 참조).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예언자들을 죽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마태 16,21) 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바꾸어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의 증오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갈릴레아에서 당신의 선교가 낭패에 직면한 것을 의식하신 예수님은 ‘고통을 받는 주님의 종’ 에 관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떠올라 점점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걱정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김없이 당

신의 고통과 죽음과 그리고 마침내는 부활하리라는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대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태 16,21) 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는 종으로서, 아들로써 아버지의 구원계획을 성취할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 매번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실 때마다 반대자들과 부딪치셨습니다. 맨 처음에 가난하게 살아가기로 하셨을 때 사탄과 싸워 물리쳐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실 때에는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만류하던 베드로와 싸워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파’ 라 부르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통받는 종’ 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육정에 끌려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는 바로 이것인데, 첫 인간인 아담은 교만스럽게도 “아니오” 하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일을 “예”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신뢰하는 아들의 답변으로 하신 “예”는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3. 당신의 수난을 알리신 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세 가지의 일입니다. 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함축됩니다. 개인적인 모든 안

녕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신앙의 깊은 어둠 속으로 용감하게 투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 십사처 보다 더 많은 길입니다. 신자들 중에, 수도자들 중에는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미리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죽음이란 슬픔을 수반하는 것이요, 십자가 나무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너는 온갖 어려움을 감수할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란 말을 입밖에 내지도 말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다.”

갈바리아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사랑과 죽음이 하나가 됩니다. 확실한 것은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방안에 십자가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 포기의 상징입니다. 특히 자기 극복에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연중 제23주일

에제 33,7-9 ; 로마 13,8-10 ; 마태 18,15-20

말할 의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 짓는 형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좀 이상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1) 일대 일로 만나서 말하라. 2)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말하라. 3)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라.

이 답변은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등등...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 있는가? 하물며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말하라는 것은 불쾌하다” 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느 개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두 독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 에제키엘서에서 하느님은 예언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보초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하는 말을 듣거든 그대로 일러주어라. 내가 한 죄인에게 ‘너는 사형이다’ 라고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네가 그 죄인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타일러주지 않았으면 그 죄인은 자기 짓값으로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지우리라. 그러나 네가 그 죄인에게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었는데도 그가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지 않았으면 그는 자기 죄 값으로 죽겠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언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게 됩니다.

2.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로마 13,8-10) 라고 하셨습니다.

3. 이 두 성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복음 구절 가운데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이 현존하시는 공동체로 보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의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며 선택된 사람이고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사

람이기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의 예언자로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예언자들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여러 예언자들(신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며, 이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요한 11,42).

하느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요한 11,42).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공동체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공동체 일원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미사 복음 바로 앞 구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마태 18,14) 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예제키엘 예언자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항상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과 글과 좋은 본보기로 전해야 하고 비록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지붕 위에서 외쳐야 합니다. 태아유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없이 행하며 마치 그것이 허용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는 끝까지 비합법적임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존해 계신 전 공동체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할 일이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이 할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밝히며 잘못을 지적해 주는 예언자는 “자기 생명을 구원할 것” 이지만, 침묵을 지키는 예언자는 “이웃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는 경고를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예언자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의 의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요한세자가 헤로데에게 한 것처럼 일 대 일로 말하십시오. 만일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하십시오. 끝으로 그것이 교회와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만일 그가 잘못을 고수한다면 스스로 교회 밖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본당, 수도회) 예수님과 일치되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공동체들은 순종적이며 의욕적이어야 하고 악을 삼가며, 좋은 모범으로 말을 하되 모든 공동체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되면 될수록 하늘의 아버지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할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비위를 거스르는 말이라 해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연중 제23주일

에제 33,7-9 ; 로마 13,8-10 ; 마태 18,15-20

교회는 공동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형제적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1) 죄인들의 공동체 2) 용서의 공동체 3)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 두 사도를 부르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도 사도들을 닮아서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될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든...”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 해도 여전히 나약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용서해 주어야 하고 서로 용서를 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충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 단계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1)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사실을 알린다. 2) 필요한 때에 증인이 될만한 다른 형제를 참여시켜 타 이른다. 3)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 공동체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자비를 얻는 절차로서 요한 세자가 몸담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꿈란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절차입니다.

1. 공동체의 형제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결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친절해야 하는 반면 꾸중을 듣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책망을 듣고 자기를 질책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꾸중을 듣는 사람

과 꾸중을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장벽이 높아지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2. 마태오 복음서에 의하면 교회는 각자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느님의 자비에 내맡길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욱 잃어버린 양을 잘 찾아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형제를 파문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마태오 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지난 주일 복음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용서의 권한은 다른 사도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화해의 사명을 점차로 교회에 넘겨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교회 구조를 설정하십니다.

3.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기도는 일치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무기이며 일치를 조성하는 무기입니다. 만일 “세상일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필립 3,19) 이면 우리는 분열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이 드높아지면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사도적 활동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연중 제24주일

집회 27,33-28,9 ; 로마 14,7-9 ; 마태 18,21-35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에서처럼 이번에도 임금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종은 우리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나라이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의 사랑은 물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교육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를 사랑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그것은 하느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해 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루가 6,27-36). 그러므로 세속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보복해야 해” 하는 말은 쓸모 없는 말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벌하고자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욱 강조하여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 6,15)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교인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사랑을 보면서 감탄하여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신자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면 이교인들보다 더 악하며 사람들의 개종에 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2.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분은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모든 이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신 분입니다. 스테파노 성인이 치명 당하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한 덕분에 바오로 사도를 얻지 않았습니까?

3. 우리 이웃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도 하느님의 자녀이니, 주님은 같은 피와 같은 십자가로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보라! 너를 위하여 나는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보아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렴” 하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싫어요. 나는 원수를 갚을 거예요!” 하고 말하겠습니까?

4.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이미 십만 번도 더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범죄한 것에 비하면 내가 받은 옥설이 무어 그리 대단합니까? 내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용서해 줄 조건만 찾으시는 분입니다.

5. 나의 이익을 위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만큼 나에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느님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일 내가 이웃을 용서했다면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6.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가) 하느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탕감해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느님은 전부 탕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 “너희가 만일 네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용서는 마음 내부로부터 해야 하며 또한 외적으로도 용서를 해야합니다. 가식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아야 하며 “용서는 하되 그러나...” 하고 조건이 붙으면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여러분 중에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셨으니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결속되어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 요안 갈베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맙다” 라고 하시고 그에게 사제성소를 주셨습니다.

연중 제25주일

이사 55,6-9 ; 필립 1,20ㄷ-24, 27ㄱ ; 마태 20, 1-16

노동에 대하여

“왜 당신들은 하루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 하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한가한 모습을 나무라시고 일할 것을 권장하며 우리에게 적당한 품값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 한만큼 품값을 주겠소”(마태 20,1-4).

1. 사람에게 노동은 의무입니다. 욥은 “새가 날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고 말했습니다.

가) 노동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이었으나 원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았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죽도록 고생하여 먹고살리라 ...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나) 우리의 첫 조상이 거역하여 노동을 해야 했다면 우리 역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 노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감히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높은 지위를 갖고 부자라 해도 하느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인간은 명예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사벳 성녀는 매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소년시절 때부터 노동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설교하러 가실 때는 걸어가셨고 먼길에 지치셨으며 자주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 양을 치라 …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세운 것이다”, “씩지 않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이 있을 수 없으며 가난과 무식이 있을 따름입니다.

2. 일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동은 육신과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가)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입니다. 죽음은 원죄의 결과라면 노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한가함은 교만을 낳게 하지만 노동은 겸손을 줍니다.

나) 노동은 유혹을 대적하는데 강한 약으로서 유혹자인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 악마는 특히 한가할 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게 일하는 수도자에게는 악마가 접근하지 못하지만 한가한 수도자에게는 많은 유혹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도와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셨고 베네딕도 성인은 “기도하고 일하라” 하셨으니, 노동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으며 좋은 건강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수녀들이여! 노동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의 법이며 성가회의 법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함으로써, 우리 힘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되고 하늘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감미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 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 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1981년)

연중 제25주일

이사 55,6-9 ; 필립 1,20c-24, 27c ; 마태 20,1-16

포도원 일꾼과 품삯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는 계약에 의하여 일을 시키되 일터로 보내진 시간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퇴근시간이 되자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품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비유가 다 그러하듯이 그 의미는 무한합니다만 시간상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을 의미함

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로서 모든 이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전연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필요한 것이 전연 없으시며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영혼이며 우리의 영혼이며 모든 사람을 포함한 전체 교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일꾼은 역시 우리들이고 성세를 받은 신자들이며 수도자들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게으름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할 일 없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품값을 주겠소.” 일은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인생은 짧아서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거나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내일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살아있다해도 하느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품값의 지불시간은 죽음의 순간이며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직 일한 사람들만이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품값은 하늘나라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인은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부릅니다. 이것은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해한다면 많은 것을 묵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자 각자에게 하느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으로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자신이 훌륭한 일꾼으로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 안에 아들을 잉태하시고 아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 주시며 그밖에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인간이며 동시에 죄인이고 그러면서도 성세를 받은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인

이상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일을 했어야 했겠지만 원죄 이전에는 큰 고통 없이 즐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다룰 수 있지만 각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 누구나 일을 해야 합니다. 개미와 거미도 일을 해서 먹고사는데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서야... 죄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죄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에, 수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어려서부터 일을 하였고 공생활 중에는 마을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다니셨습니다. 피곤하여 우물결에나 배 안에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특히 인간의 구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세속의 욕망을 쫓는 것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하느님에 대한 말이나 설교를 일체 하지 않는다면 병어리 짓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실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니, 하나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시간을 잃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3. 포도밭 주인의 비상한 행동은 처음 온 사람부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까지 똑 같은 임금을 줍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완전한 자유이시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감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에 누구도 그분을 조정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인간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능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이 일꾼들에게 똑 같은 품값을 주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한국에 와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번도 한국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당에서 교리를 가르치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짧아서 하느님의 정의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훨씬 먼 곳까지 보시고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시므로 하느님의 행동은 언제나 신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바오로 사도와 같이 항상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나 마음 같아서 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연중 제26주일

에제 18,25-28 ; 필립 2,1-11 ; 마태 21,28-32

순종하지 않는 두 아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비유처럼 여기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1.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 말씀하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일(성지주일) 저녁이나 그 이튿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였고, 또 다른 편에서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는 유대인들을 더욱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때에 복음서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환금상들의 탁자와 의

자를 둘러엮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습니다.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어린이들의 소리를 막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이 나옵니다. 또한 말씀 한 마디로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한 일,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비유 등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절름발이, 거지 등을 초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즈음에 정말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위선자들이며 거짓을 일삼는 자들로서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포도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과 같다. ... 사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밭 주인(아버지 하느님)은 두 아들을 두셨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맏아들은 처음엔 싫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불효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선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더 못한 불효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탓으로 반대하지 못 하는가하면, 경솔하여 충

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 또는 고의적으로 속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 외견상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속히 순명하는 것처럼 “갈 것입니다” 하지 않고 “갑니다” 하고 확실한 태도로서 무척 효성스런 아들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순명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자 한 것입니까? 자기자신을 속인 것입니까? 이런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용기도 없을 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 위한 거짓 효성이기에 악한 짓입니다. 효성스런 아들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으므로 불효입니다.

첫째 아들은 예의도 없이 분명하게 “안 가겠어요” 하고 말합니다. 정말로 불효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하고 뉘우쳐 일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둘째 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에 젖어 살았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으며 율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열심한 신자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치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 소위 큰 죄인들이 이들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다른 이들 보다 학식이 더 많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많이 보여주어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식하고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은 감동을 받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범을 본받으려

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서 죄를 입증하겠느냐? 나의 많은 기적을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 다음에 너희의 부끄러움이 어떠할지, 너희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이 가련한 죄인들만도 못한 자들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진실된 믿음 안에서 효성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서원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수녀들입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불충한 두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열성은 거짓이고 교만이며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각자 ‘나’ 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합시다. 고해성사를 보고 매일 우리의 잘못을 고쳐잡시다. 만일 “나는 죄 없다” 고 말한다면 바리사이파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은 거짓 착한 사람을 몹시 싫어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26주일

에제 18,25-28 ; 필립 2,1-11 ; 마태 21,28-32

순명

예수님께서 하신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당신 수난을 얼마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오 복음서에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권력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언뜻 보면 유대인들의 답이 옳은 것 같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1.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순명은 외적인 순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명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순명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율법을 고수하였기에 하느님께서 한 번도 명령하신 바 없는 전례와 관습을 지키는데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철저한 행동이 찬양 받을만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순명은 올바른 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백 번을 “네, 순명하겠습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께 드린 순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들에 의하여 더 많이 첨가되고 수정된 율법을 두고 한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성서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규정과 금지사항으로 가득한 유대인의 율법책인 탈무드를 믿었습니다. 진실한 순명은 법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2. 올바르지 못한 순명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기들의 완전한 법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으므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엄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유대인들은 순결이나 청빈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죄없는 순수한 사람들과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오나 자케오, 막달라 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내 맡겼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히려 창녀들이 그분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교만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간섭하는 모든 것을 추방하고자 생각한 반면, 죄인과 창녀들은 인간한테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엄격주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자비심은 그들을 끌어 당겼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직업이 천하다 해도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기에 교회의 문은 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3. 착한 순명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는 매춘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나쁜 욕망의 불길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참 사랑의 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더럽혀진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겨지지 않는 전환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왜 열성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주인이신 하느님과의 계약은 미리 예정되었기에 어떤 수

정도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종교적 자부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순종이란 계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던 탓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고약한 부자였습니다. 세리처럼 “저는 불쌍한 죄인이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비참을 고백하는 대신 공을 쌓아 올리려는데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연중 제27주일

이사 5,1-7 ; 필립 4,6-9 ; 마태 21,33-43

살인자 포도원지기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당신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한 권의 책이며 한 분의 작가는 “성령” 이십니다. 언제나 같은 생각과 같은 말씀이니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의 님은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님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왜 말인가?”(이사 5,2)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 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마태 21,33).

주인(하느님)은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내

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가문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며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느님은 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며 교황들이고 학자들입니다. 하느님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 좋은 수확을 얻게 되길 기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포도원지기들이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종들(이사야, 예레미야)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죽였습니다.” 스테파노 성인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 당신들은 바로 죄없는 그분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사도 7,52)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들을 보낸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친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감탄할만한 진리를 지녔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마을 밖에, 예루살렘 밖에, 갈바리아산 위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틀 후에 하려고 하는 음모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시도록 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 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들은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영

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사도 13,46-47) 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밭 주인은 옛 일꾼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방인)을 부르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을 듣고 이교인들과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2.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 채용된 포도밭 농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그 열매를 봉헌해야 하며 좋은 작품을 드려야 합니다.

주인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진실과 선,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육정의 열매인 음행, 더러운 것,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과심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주인께 바칠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소임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한 승리의 월계관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볼 때 원통해 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특히 축성된 자들, 성직자, 수도자들은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게 된 것을 한없는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살인자 포도원지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약한 포도원지기, 주인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꾼, 주인을 욕하는 일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마태 8, 11-12).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연중 제28주일

이사 25,6-10ㄱ ; 필립 4,12-14. 19-20 ; 마태 22, 1-14

잔치에 초대된 자들

지난 주일에 포도밭 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금님(하느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보냄을 받은 일꾼이 죽게 되자 화가 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전부 초대하시는 왕과 예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비유 이야기는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임금님(하느님)은 자기아들의 혼인잔치(아들의 결혼은 인류와의 결혼)를 베풀었습니다. 매년 잔치를 언급할 때는 중요한 교리, 즉 성체와 하늘 나라에 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야훼,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이사 25,6) 하였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잔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오늘 임금님께서도 혼인 만찬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합니다. 세상에! 임금님

의 초대를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 구원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그 숫자와 방법에 있어서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세 번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는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하고, 두 번째는 임금이 종들을 초대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어 “이제 잔칫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 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 하려고 계획한 일을 핑계삼아 자기들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들 중에는 종들을 잡아죽이는 등, 난폭하게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마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청해 오너라” 하여 잔치 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 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만찬에 갈 때는 언제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밖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2. 수녀님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가 아니고 오늘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나” 역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상을 선호하였으므로 거절하는 바람에 그들의 자리에 대신 이방인들이 초대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무시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초대된 사

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 초대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이 곳에 있지만 있을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화은총 중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3. 이 비유에서 왕은 많은 종을 보내고 또 여러 번 보내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성서를 보면 이들은 예언자들이며 지혜롭다는 사람들, 사제들,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사도들과 주교들, 사제들, 신자들,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교인들도 우리에게 초대를 전해주는 하느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느브갓네살왕과 고레스왕이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천사들과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를 수도 있고 무명인이 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시련이나 기쁨일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이 바로 부르심이며 은총입니다. 부름을 받는 종들의 목록이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종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응답의 방법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운 사람은 적습니다”(마태 22,14).

하느님은 자주 우리를 부르시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보잘 것없는 이상을 추구하느라 큰 이상을 포기합니다. 또는 예복이 없습니다. 예복은 성화 은총일 수도 있고, 부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필립 4,12) 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는 즐거운 공동체의 모임일 뿐 아니라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 주님의 전능과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중 제30주일

출애 22,20-26 ; 1테살 1,5ㄷ-10 ; 마태 22,34-40

이웃사랑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정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누가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고통을 나누어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며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랑은 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좋아하는 것,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치명자들을, 우리 어머니를, 착한 수도자들을, 나라의 영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보다 먼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

랑하는 사람은 남의 근심걱정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면 못 본 척해서는 안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먼저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 사랑은 수고를 모르는 것, 수고가 있다해도 그 수고마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1.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느님의 섭리로 매일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웃집 사람은 찾아가 보아주지 않으면서, 한번도 본 일이 없는 먼 곳에 있는 외국인을 사랑한다던가, 밖에서는 예모 있게 보여도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수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다면 역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쉽게 하지만 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투자일 뿐입니다. 사랑은 나 자신과 하느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남을 도울 때는 궁전의 임금님을 찾아가기 보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도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절약을 배우며, 우리 옷을 기워주고 빨래해 주신 우리들의 어머니를 회상하게 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

들에게 당신이 쓰고 남은 것뿐 아니라 귀중히 여기는 것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선은 벽장만 채울 뿐입니다. 당신의 정신과 마음까지 주십시오. 정신을 준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고 우리의 지식을 나누며 잘못 알고 있는 점을 바로잡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기에 우리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십시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십시오. 혼히는 그들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이 항상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이 가난보다 더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가) 참된 사랑은 투명한 웃음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슬프고 무거운 침묵으로 쌓여 있습니다.

나) 참된 사랑은 다른 이만을 생각합니다. 거짓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서 베풀 생각은 아니하고 받을 생각만 합니다.

다) 참된 사랑은 다른 이의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거짓 사랑은 다른 이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라) 참된 사랑은 너그럽고 넓고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은 이기적이며 메마르고 무정합니다.

마) 참된 사랑은 항상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마음엔 항상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거짓 사랑은 비록 웃고 있어도 그 마음 안에는 근심과 질투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먼저 저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기도 드리오니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참 사랑의 작은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가난 속에 있는 이들

을 사랑하는 비녀 되게 하여 주소서!

연중 제30주일

출애 22,20-26 ; 1데살 1,5ㄷ-10 ; 마태 22,34-40

이웃 사랑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예수님과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들 서로가 평화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자로서 우리가 서로 깊은 유대 속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강한 힘을 갖게 되어 누구도 우리를 적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행복 할 수도 없습니다. 애덕 실천을 위하여 피해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야 할 점

가) 정신적인 죄

너무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태 7,1-2) 고 하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세리를 판단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애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비록 실수를 했다해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 마음의 죄

탐욕, 질투, 반감, 까다로운 성미, 앙심, 증오 등은 우리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범하는 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인의 형제와 요셉 형제들, 예수를 걸고 넘어진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남의 불행을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 말

자기 안에 아름다운 애덕을 보존하기 위하여 혀로 짓는 죄를 피하십시오. 험담하기, 중상, 빈정거림, 멸시하는 말들, 거친 말, 악의에 찬 비난 등, 이런 죄를 범하면 자신 안에 평화를 얻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많은 논쟁이 일게 됩니다.

라) 행동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말며 보복하지 말 것이며 거칠고 부정직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2. 해야 할 의무

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한다면 당신보다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자기의 결점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덕이나 공적을 들어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존중할 줄 안다면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하늘 나라에서 성인들과 천사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적 사랑, 육적 사랑이나 흥미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천사들과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초월적 사랑입니다. 요한 성인은 생전에 “사랑하는 아들들”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점이 있고 그 결점은 근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괴상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또 다른 이는 성격이 거칠고 등등.... 그러니 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조용히 참는 것이 낫습니다.

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봉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도록 자주 기도해 주고 좋은 표양과 말로 그들을 하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늘 할 일이 있고 도움 방법이 생깁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사도 2,47) 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각 가정에서, 각 마을에서, 각 본당에서 모두가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된다면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요, 그 곳에는 애덕과 사랑이 충만하여 하느님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영성체는 특히 우리를 하나되게 하지만 하늘 나라에서 더욱

완성될 것입니다.

애덕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이 이교인들을 감동하게도 하고 이끌리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두 함께 하늘 나라에서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연중 제31주일

말라 1, 14ㄴ-2, 2ㄷ. 8-10 ; 1테살 2, 7ㄴ-13 ; 마태 23, 1-12

사제직

오늘 교회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사제이신 그리스도께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1독서에서 못된 사제 상을 제시하고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착한 목자 상을 보여주며,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의 자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들은 사제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고 생각하고 ‘강론 동안 잠이나 자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1.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 말씀들은 사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과 수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성세성사로서 모든 이들이 사제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사제들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사제들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없습니다.

사제는 누구입니까?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하느

님께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와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오직 한 분의 사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 뿐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에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세성사를 받음으로써, 굳은 신앙으로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신비체가 되며,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통하여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재자가 된 우리는 사람들, 곧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환자들 노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자가 아니며 사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세성사를 받은 사람과 신품성사를 받은 사제와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처럼 신품성사를 받은 사제는 교회 안에서 직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위임 할 수 없는 몇 가지의 권한을 받는데 고해성사, 성체성사, 다른 여러 성사의 집행 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사제직을 전수 받았지만 오늘의 사제들은 멜키세덱에 따라, 즉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따라 행해집니다.

2. 사제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올바른 사제라면, 즉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 사제라면 하느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자 되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들에게 모진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사제들에게는 “겉꾸미는 자들아 …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 … 뱀같은 자들아 …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마시오” 하는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교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있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하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늘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느브갓네살왕은 자기 궁전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겸비하고 지식과 학문을 통달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도 이렇게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제들은 계약의 궤를 모실 때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삼위를 모셨는데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야 되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느님의 사제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데, 이 중대한 일을 죄인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명예에 관한 일이 아닙니까?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죄인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나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므로 더 많이 기워 갚아야 합니다. 주님의 착한 목자가 되어 모든 이에게 열심한 삶, 순결한 삶, 겸손한 삶, 일하는 사제 상을 보여주십시오.

3. 우리가 이 세상의 실상을 바라볼 때 신자들과 사제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물론 하느님의 은총으로 많은 이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악한 표양을 주는 이들이 사제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심도, 순결도, 겸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변형시키고 있

습니다. 그들은 흔히 위선자들이며 말쟁이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우 여러분에게 대한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목격해서 잘 아는 일이고 하느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1데살 2,10) 라고 하셨습니다.

옳지 못한 사제들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며 예비자들과 병자들을 방문하기를 싫어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도자들도 편안하고 게으른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십 세기에 살고있는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간에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젊은이들이 항상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뿐이며 실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들이 여러 면에서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나 한국에서나 부모들이 아이들은 교리반과 미사에 보내면서 자기들은 성당에 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덕을 가르치지만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젊은이들은 혐오를 느낍니다.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입니다. 거짓교사나 위선자들이나 거짓말쟁이는 더 이상 보고싶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진실한 삶을 산다면 많은 나쁜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실된 목자로써 살아갑시다.

말라기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한 분이 아니시나? 우리를 내신 하느님도 한 분이 아니시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여 우리 조상이 맺은 계약을 깨뜨리느냐?”(말라 2,10)

연중 제32주일

지혜 6,12-16 ; 1데살 4,13-18 ; 마태 25, 1-13

미련한 처녀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을 며칠 앞두고 특별히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26장부터는 수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엔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한가지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조금 있으면 당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심하십시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도자들은 이 동정녀들에 관한 비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머거리입니까? 우리는 진지합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순

간에 달렸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는 중요한 일입니다.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나 이들 중 다섯 처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들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가치 있게 관리하십시오.

열 동정녀 중 다섯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조심성과 예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라고 한 말로 보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애덕과 선행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명도, 동정성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어리석은 동정녀들은 졸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조용히 기다리다가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 좋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이것은 선행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인들에게 기대하고 자기 수도원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준비하여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섯 사람은 이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무감각한 사람들도 아니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시작은 잘 하지만 결코 끝을 내지 못 하고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것이니…”

마지막 심판 날에 각자는 자기 고유한 짐을 지게 됩니다. 각자는 남의 선행에 의하여 심판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선행에 따라 심판 받을 것입니다. “가서 너희의 것을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기름을 파는 사람들은 “당신은 아주 열심히 동정녀세요” 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언제나 더 잘 살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즉, 스포츠나 공부, 의복이나 소설, 유행 등, 세속의 불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동안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찬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으며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외된 당신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세요.” 이 처녀들은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결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랑이 도착했을 때 깨어나 얼른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부질없이 가슴을 치고 늦게 보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속이 성실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람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기에 위선자들과 불충한 자들을 함께 내치실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첨꾼들은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아주 성녀세요” 하고 말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많은 친구나 알고지내는 사람들이 많을 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 복음에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나는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영생을 주리라” 고 하신 예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참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

이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만이 아버지를 아신다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고 말씀하셨으니 만일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연중 제33주일

잠언 31,10-13. 19-20. 30-31 ; 1데살 5,1-6 ; 마태 25,14-30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은 오늘 대 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여러 종을, 아니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자기 노예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두 번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세 번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이렇게 각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1. 이 지주는 누구입니까? 이 지주는 하느님입니다. 종들은 일반 사람들이고 달란트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모든 은총입니다. 이 비유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느님은 무로부터 나를 꺼내어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부르시어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나의 육신, 나의 지력, 나의 의지, 행운의 부

모님, 친구들, 교회, 성사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두 달란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종들은 이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다만 수탁자일뿐이기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늘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하느님은 나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재산을 늘려 놓아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돌아와 재산 관리 결과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2. 주인이 떠나고 난 후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재산이 모두 자기들 수완에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재산증식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재주도 있었고 힘과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었으므로 상점을 경영하며 번 돈을 예금하여 주인의 재산을 날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을렀기 때문에 일하기를 무서워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주인의 재산을 묻어 놓고는 놀고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주인만 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람은 즐기는 것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나는 하느님의 이자를 늘리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려 했으며 영혼 구원에 이바지하였습니까?

3.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와 계산을 요구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예고 없이 도둑처럼 돌아온 주인은 그들에게 셈을 요구합니다. 맡겼던 돈을 두 배로 늘린 두 사람에게서 주인은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하느님은 셈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도 착한 종처럼 답할 수 있

겠습니까? “당신은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느님을 알리고 사랑하고 봉사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영혼을 구했는지!”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상이라 함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이 들어왔는데 그는 먼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주인이 화낼까봐 수줍음과 두려움으로, 이 돈을 난봉부리느라 없앤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보관했다면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변명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것에만 만족해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주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 종은 무용한 종이므로 하느님은 그를 악한 종이라 부르고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무서운 교훈입니까? 나쁜 짓은 안 했지만 무용한 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힘을 잃고 전락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십니다. (1981년)

성재덕 신부 강론집

1999년 10월 14일 초판 발행

지은이 성재덕(Pierre Singer)

만든곳 가톨릭 출판사

펴낸이 서울성가소비녀회

취급처 서울 성북구 정릉1동 10번지

Tel (02)914-2078 FAX 943-1603

- | | |
|----------------|-----------------|
| 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5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5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5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5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1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6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1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6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1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6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1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6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1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6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2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7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2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7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2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7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2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7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2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7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3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8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3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8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3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8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3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8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3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8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4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9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4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9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4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9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4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9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4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9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 5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10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

10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0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0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0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1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1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1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1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1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2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2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2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2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2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3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3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3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3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3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4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4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4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4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4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5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5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5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5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5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6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6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6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6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6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7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7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7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7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7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8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8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8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8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8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9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92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94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96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198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
200 성재덕 신부님 강론집